장편실화

인생결차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3 장
갈길이 정해진 이상 가야 한다

누구에게나 길은 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흔적이 력사의 갈피에 영예롭게 혹은 수치스럽게 새겨지기도 하고 또한 자취없이 세월과 더불어 사라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의 자치와 존엄을 위해 한생을 모색해온 독립운동지도자들을 잊지 않는다.

한생을 비폭력무저항주의운동으로 인디아의 독립을 위한 길을 걸어온 간디를 못잊어 인민들은 뉴델리에 그의 릉을 세웠다. 간디릉은 그의 화장식을 거행한 라즈가트에 꾸려져있다.

간디릉의 면적은 크지 않다. 검소하게 꾸려진 릉은 멀리에서 보면 마치 웃뚜껑이 없는 큰 흙무덤과 같이 보이고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주단처럼 깔려있다. 그 둘레에는 콩크리트담장을 쳤고 담장은 사시장철 푸른 덩굴나무들로 뒤덮였다. 거기에는 붉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2개의 작은 문이 나져있다.

릉원중앙에 검은색대리석으로 쌓은 간디묘가 있는데 묘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3메터이고 높이는 1메터이며 밑부분은 장방형으로 되여있다. 릉의 정면에는 힌두어로 《오! 로머여!》(오! 하느님이여!)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간디자서전》에 의하면 그는 어렸을 때 마귀를 무서워하였는데 집안사람들은 그에게 《로머》를 찾아 마귀를 쫓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이때로부터 재난이 닥쳐올 때마다 《로머》를 찾아서 화를 복으로 만들군 하였다는 간디였다. 그가 총탄에 맞아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은것도 이 한마디 말이였다.

간디는 정치가로서는 너무나 성자의 모습이 짙었고 성자로서는 너무나 정치적색채가 농후하였다고 할가.

그 역시 자기는 성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말하군 하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 지상의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신을 두려워할뿐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것이며 또 나는 어느 누구의 부당한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을것이다. 나는 진실로써 진실하지 못한것과 싸울것이며 모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참되지 못한것을 물리치련다.》

간디릉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꽃잎을 간디릉에 뿌린 다음 땅바닥에 꿇어앉아 경문을 외우면서 간디의 명복을 빌어 기도를 드린다.

인디아를 방문하는 외국지도자들도 다 간디릉을 찾아가 꽃다발을 증정한다. 사람들은 간디릉을 돌아보면서 그가 내들었던 《불살생》, 《진리파악》이라는 구호를 력사의 시점에서 다시한번 음미해보는것인지.

인디아의 자치를 획득하기 위한 그의 불복종운동은 비폭력무저항주의로 하여 대중적지반을 잃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그자신은 개별적단식운동을 전개하는데 그쳤지만 그의 선량한 넋은 얼마나 큰 지지와 동정을 불러일으켰던가.

인디아인민들이 수도에 간디의 묘를 세워 성지로 지정하고 정신적기둥으로 그를 우러러보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인디아의 화페에도 간디의 초상이 새겨져있다.

《종성의 구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는 바로 간디가 생전에 일생토록 추구해온 리상사회의 하나였으며 인디아 헌법에도 그것이 명시되여있다.

간디의 그 이름은 인디아인민의 기억속에 살아있어 《마하트마》로 오늘도 불리우며 세상에 전해지고있는것이였다. 인민들은 여기에 선량한 그의 넋을 보존하고 길이 전하며 여기서 또한 많은것을 추억하고있다.

유구한 력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피의 교훈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길은 멀고 험하다.

인생길이 누구에겐들 탄탄대로가 되랴.

멀고 험한 그길을 사람마다 제나름으로 가로 질러 혹은 에돌아 빨리 가려고 모지름을 쓴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사람의 한생은 력사의 한순간에 불과한것이지만 그 순간들을 간고하게 톺아오르며 인간은 력사를 창조하는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것인지.

묻노니, 력사여! 인간의 무궁무진한 그 힘에 떠받들리여 너는 자기 발전의 길을 가고있는것인가.

비슈와나스는 자기 조국의 력사를 안고 진리의 길을 모색하며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모지름을 썼다. 큰 목표도 앞으로 나갈 때만이 주어지고 원대한 리상도 앞으로 나갈 때만이 품어지는것이다.

강물을 따라 계속 걸으면 꼭 바다를 보게 되리라.

그는 이런 의지를 안고있었다. 갈 길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는다.

간디의 《마하트마》가 배회하는 땅에서 자기 삶의 길을 찾아 몸부림쳐온 우리의 주인공의 인생길을 나는 계속 더듬어간다.

1. 자기의 힘으로

자유의 새는 이미 《유토피어》세계를 날고날았다.

마음속의 그 새는 드디여 비슈와나스의 걸음을 지구상의 첫 사회주의나라에로 이끌어갔다.

첫 출국은 누구에게나 자못 설레이는 일이다. 그것도 자기 나라와는 다른 체제, 다른 제도의 나라에로 갈 때에는 더욱 그러한것이리라.

국경과 국경을 넘어 달려온 국제렬차는 축구꼴문대모양으로 크

게 세워져있는 나무문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그 나무문의 웃부분에는 CCCP(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라고 쓴 글발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여있었다.

CCCP! 그 이름 얼마나 빛나던 시대였는가.

바로 이 나라였다. 이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수행된 후 레닌의 다민족사회주의국가형성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1922년에 그 창건을 선포한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인것이였다.

공화국련맹의 창건은 쏘련인민에게 얼마나 자랑찬 성과와 위훈들을 가져왔던가.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의 실현, 파쑈도이췰란드침범자들에 대한 격멸, 전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의 부활…

지구륙지면적의 1/6을 차지하고 국제무대에서 그 위용을 당당히 떨치고있는 사회주의중심의 그 나라에 지금 비슈와나스는 처음으로 들어서고있는것이였다.

렬차는 열려진 나무대문을 천천히 지나갔다.

둔덕들이 듬성듬성 있는 벌판의 대문옆에 붉은별이 달린 모자를 쓴 두명의 붉은군대병사가 어깨에 총을 메고 청동의 자세로 차창들을 랭담하게 바라보고있었다.

그때 그 누가 인류력사상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이 그 세기의 마지막년대에 근 70년간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될줄 상상이나했으랴.

그랬다. 그때에는 많은 나라의 사회주의지지자들이 이처럼 쏘련으로 물밀듯이 흘러들던 시대였다.

모스크바에 내린 비슈와나스는 따쓰통신사 관계자들의 마중을 받았다.

한주일에 걸치는 모스크바체류기간 비슈와나스는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하에서의 쏘련의 눈부신 성과들과 활기띤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의 우월성이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있었다.

정치체제와 사회흐름에 예민한 그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중시하고 있는 공산당의 령도적역할과 국가활동의 강화 등에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체류기간 그는 따쓰통신사와는 물론 쏘련상업성과도 많은 교섭을 하였다.

거기에 에피모브의 딱친구가 있었던것이다. 에피모브의 소개신을 가지고 찾아가 만난 그 친구는 유리 뻬뜨로브라고 하는 아주 쾌활한 사람이였다.

뻬뜨로브는 모스크바에서 8키로메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의 별장에 비슈와나스를 초청하였다.

그는 겨울에는 주로 이곳에 와있다는것이였다. 그의 집은 시내의 아빠트에 있었다.

그 친구는 술도 잘 마셨다. 호흡이 맞았다.

비슷한 성격과 취미 그리고 동업자라는 그것이 그들을 인차 친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두 나라간의 상품전시회와 무역거래 그리고 무역도서의 출판과 관련한 많은 계약을 맺었다.

비슈와나스는 시간을 내여 뻬뜨로브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180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야스나야 뽈랴나에도 갔었다.

19세기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거장인 똘스또이가 《전쟁과 평화》, 《부활》과 기타 소설들에서 여러번 묘사한 이곳의 경치를 그는 오래도록 부감하며 생각에 잠겼다.

야스나야 뽈랴나라는 지명은 수림가운데 있는 경치 아름다운 넓은 공지라는 뜻을 담고있다.

새하얀 탑과 봇나무림속으로 뻗은 꼬불꼬불한 오솔길, 늪을 가로 질러놓은 자그마한 다리, 둘레에 빼곡이 둘러선 나무들로 하여 이곳은 겨울인데도 경치가 한결 정가로왔다.

작가의 집은 푸른 지붕에 새하얀 벽체로 된 집이였다. 그앞에는 못이 있었는데 《인수》라고 불리운 오랜 비술나무 한그루가 서있고 둘레에는 정향나무가 들어차있으며 문옆에는 넓다란 로대가 붙어있었다.

작가의 집필실에는 큰 책상 하나가 놓여있었고 이딸리아의 화가 라파엘이 그린 성모상이 걸려있었으며 작가가 입던 옷가지들이 진렬되여있었다.

서재에는 그가 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35종의 문자로 출판된 2만 2 000권의 도서들이 진렬되여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문학의 거장의 생가를 돌아보며 무저항주의와 그리스도교적박애주의, 도덕적완성 등의 교리로 일관된 《똘스또이주의》를 되새겨보았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의 하나로 되여있는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똘스또이주의》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있는지.

똘스또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한 일만 해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물론 사람은 선한 일만 해야 한다. 하지만 똘스또이의 그 말은 너무도 많이 들어온 박애주의에 불과한것이였다.

똘스또이 역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있다.》는 종교와 박애주의의 제창자라고 생각되였다. 그러한 똘스또이가 《사람의 두가지 악덕은 무위도식과 미신이며 두가지 미덕은 활동과 지혜이다.》라고 한것은 아주 들을만한 말이였다.

마하트마 간디도 비폭력무저항주의운동을 벌렸지만 그것이 과연 모순에 찬 현실로부터의 옳은 출로였던가.

비슈와나스는 이 세상의 모든 리념과 주의주장들을 둘러보고싶었고 자기의 견해를 정립해보고싶었다.

그는 부단히 사색하며 앞으로 나갔다.

귀국할 때에는 비행기로 런던을 거쳐 왔다.

그것은 언제나 반복을 싫어하는 그의 취미이기도 하였지만 보다는 자기 조국의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데 목적을 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전반기에 산업혁명을 수행하여 세계최초의 공업국가로 된 영국의 면모를 알고싶었던것이다.

엥겔스는 자기의 저서 《영국로동계급의 형편》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지는 의의는 프랑스의 정치혁명이나 도이췰란드의 철학혁명이 가지는 의의와 같다.》고 썼다.

상업금융을 전공한 그는 바로 경제발전에서 그러한 의의를 가지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시야를 넓히자는것이였다.

또한 영국은 19세기 초엽 진보적랑만주의문학의 대표자인 바이론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였다.

세계에서 유명한 시인을 낳았지만 그로 하여금 망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그의 조국을 비슈와나스는 들여다보고싶었다.

영국에는 인디아계사람들이 많았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인디아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이 흘러들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그들과 휩쓸리며 친교를 맺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런던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있는 웨스트민스터에는 넥타이를 맨 신사들이 걸어다니고있었다.

또한 한 살림집이 1층과 2층으로 되여있으며 매 층에 마당이 달려있는 훌륭한 테라스주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이 중심거리에도 실업자들이 범람하며 고급주택지구에도 뒤골목에서나 보게 되는 초라한 집들이 그냥 남아있는것이였다.

그는 영국땅에서 쌘드위치맨(광고판을 몸의 앞뒤에 메고다니는 사람)을 보고 놀랐다. 그 쌘드위치맨은 광고업자의 눈길을 끌었다.

인디아에도 이렇게 광고판을 메고다니는 사람광고판은 이전에도 지금도 없는것이다.

이것이 고도의 성장을 자랑하는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빈부의 차이가 하늘땅 차이로 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전면모를 여기 영국땅에서 보는듯 했다.

자본주의경제의 빈 공간들을 순간에 포착하는 그의 두눈은 지난날 자기 조국을 강점하고 경제상승의 길에 들어선 이 나라에 뚫고 들어갈 경제적틈들을 예리하게 엿보았다.

첫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비슈와나스는 자기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찬 일거리를 듬뿍 안겨주었다. 그것은 《인터라즈》에 보다 큰 활성을 가져오는 계기로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생각해낸 고안들을 동료들과 토론했고 그들이 그 실행방법을 스스로 암시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가 생각한것처럼 느끼고 자각적으로 움직일수 있게 하였다. 경영활동에서 그 방법은 사람들을 배가로 분발하게 하는것이였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훈시나 시킴을 싫어하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는것을 바라고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과격한데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업적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잘 파악하고있었다.

사람들은 성수가 나서 뛰고 또 뛰였다.

비슈와나스는 기대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였다. 모든것을 《하느님》에게 맡기면서 미련을 안고 래일을 기다리는 그런 류형의 인간이 아니였다.

비슈와나스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설계했고 그 설계대로 모든것을 내밀어갔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한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앞길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 그것이 성공의 첫째가는 비결이라고도 말할수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남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을뿐만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도 대단히 엄격하였다.

자기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코 자유인이 될 자격이 없는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매해 심지어는 한해에 몇번씩 이전 쏘련과 벌

가리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영국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는 결심을 품고 세계적범위에서 출판, 광고와 관련한 거래건들을 하나하나 솜씨있게 성사시켜나갔다.

그는 우선 영국영주권을 수속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영주권을 받기는 쉬웠다.

식민지시기나 독립이후 한동안은 인디아인들이 영국에 사증없이 드나들수 있었으며 영주권도 인디아주재 영국대사관 고등판무관 아니면 영국외무성에 신청하면 나오군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인디아인들이 영국영주권을 많이 가지고있는것이며 영국녀자를 데리고사는 인디아남자들이 또한 많은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오늘도 영국에는 사증없이 다니고있다. 그의 려권에는 입출국도장만 있고 사증은 없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런던에 광고회사를 차리고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시말하여 《인터라즈》의 첫 해외지사가 나왔던것이다. 기업이 아주 잘되여서 세금도 대단히 많이 내야 할 정도였다.

《인터라즈》의 기업은 모스크바에도 점점 깊숙이 침습하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와 뻬뜨로브는 술좌석에서도 서로 호흡이 맞았고 일솜씨에서도 호흡이 잘 맞았다.

그들은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부단히 계약들을 맺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색없이 성사시켜나갔다.

결심한 사람에게 오르지 못할 산이 있으랴.

혈기에 넘쳐 솟구치는 비슈와나스의 힘은 하늘에 닿은듯싶었다. 그는 자의식이 강한 인간이였다.

그는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을 돌고돌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사회주의운동가, 사회주의기업가라고 하였다.

시종 사회주의나라들을 위주로 돌고돌면서 사회주의를 선전하였고 또 사회주의나라들의 기업들과 련대하였으니 그렇게 불리울만도 하였다.

사람마다 고유한 자기 성격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재능과 기질을 묻어두고있다. 그 재능과 기질은 생활의 환경이 조성되면 자기도 모르게 발휘되는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역시 자기 개성의 미가 있다.

그의 기업은 나날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는 부단히 일을 쫓아갔다.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수확의 열매는 주렁지기마련이다.

해가 갈수록 《인터라즈》의 수입금은 늘어갔다.

업무가 불어나는데 따라 인원도 늘여야 했으며 방도 몇칸 더 세내야 했다.

비슈와나스는 소문없이 광고의 설계와 편집 그리고 인쇄도 다 자체로 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해나가고있었다.

다시말하여 미구에는 국가적인 광고, 출판기지를 독립적으로 창설할 구상을 안고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이 구상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모든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비슈와나스는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정부와의 사업에도 은근히 힘을 넣고있었다. 그는 말없이 생각을 깊이 하고있었다.

1954년말에 인디라 간디와 처음으로 사업련계가 이루어졌다.

인디라 간디는 쟈와하를랄 네루의 딸이였다. 당시 그는 인디아 전국사회봉사기구 부위원장이였는데 비슈와나스는 이 기구의 성원이였던것이다.

회의를 마치고 헤여지면서 인디라 간디는 비슈와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 기구에서 가장 젊고 유망한 당신에게 나는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진한 눈섭과 억실억실한 두눈을 가진 인디라 간디는 그 생김처럼 성격도 비교적 활달한 편이였다.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비슈와나스는 그때부터 인

디라 간디의 눈에 들었다. 그는 승벽이 매우 강한 녀성이였다. 비슈와나스 역시 그런 성격을 좋아하였다.

실무적인 일로 만나군 하였지만 비슈와나스는 그때부터 그와의 친교를 두터이 하기 시작하였다.

20대에 쟈와하를랄 네루수상의 신임을 받고 또한 그 딸의 기대를 사게 된것은 비슈와나스에게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을 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는것으로 되였다.

인디라 간디는 무슨 일에서나 열정적이고 책임적인 비슈와나스를 좋아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무집행 전기간 비슈와나스를 신임하였으며 비슈와나스 역시 그와 공식적으로 긴밀한 사업련계를 유지해갔다.

1955년 인디아국민대회당대회에서는 네루의 제의에 따라 인디아에 《사회주의모범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강령이 채택되였으며 1959년 당대회에서는 농업개혁을 수행하며 각이한 형태의 협동경리를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이 채택되였다. 또한 네루는 대외분야에서 평화와 국제적협조, 전쟁위협의 반대, 신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반대를 지향한 중립정책을 실시하였다.

네루는 어느 한 시의 구절인 《생명은 짧은데 가야 할 길은 멀다.》를 자주 인용하군 하였다. 이처럼 그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많은 일들을 벌려놓은 사람이였다.

나라의 이러한 정책과 세계정세발전의 추이는 비슈와나스가 날을 따라 더 많이 찍어내는 사회주의서적들에 대한 법적보호와 인기를 더해주었으며 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는 또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새 생활창조로 들끓는 벅찬 환경속에서 비슈와나스는 네루와 그 딸과의 관계를 사업상관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해나갈수가 있었다.

인디라 간디는 1964년 인디아국회 상원의원으로 선거되였으며 같은 해 인디아공보 및 방송상으로 임명되였다. 그때 그는 이 성의 자문위원으로 비슈와나스를 등용시켰다. 비슈와나스는 그때 많은 일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때 비슈와나스는 민족국가수훈리

사회 성원이기도 했다.

인디라 간디는 1966년 1월부터 1977년까지 인디아공화국 수상으로 사업하는 전기간 그리고 1978년 1월부터 간디국민대회당 위원장으로, 1980년 1월부터 다시 수상으로 취임하여 반대파에 의하여 피살될 때까지 비슈와나스의 적극적인 후원자였다.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정치활동가들과 국가적인물들의 지지속에 일을 내밀어온것은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참으로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속에서 《쏘베트 땅》은 자기의 《부지》를 보다 광범하게 확장해나갔다. 1950년대 중엽부터는 인디아의 여러 지방말을 포함한 16개 어종으로 이 잡지를 번역출판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955년 5월에 와르샤와조약기구가 조직됨으로써 동서뿔럭대치상태는 더욱 구체화되고있었다. 다시말하여 나토창설과 와르샤와조약기구의 창설로 동서의 랭전은 더욱 세계의 표면에 드러나게 된것이다.

이럴 때 출판선전은 더욱 활기를 띠는듯싶다.

《쏘베트 땅》의 부수는 대폭 늘어났으며 알바니아, 벌가리아, 마쟈르, 동부도이칠란드(당시), 뽈스까, 로므니아,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를 비롯한 와르샤와조약기구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과 기타 많은 나라들에 다 배포되였다.

비슈와나스는 땀을 흘리며 돌아갔다.

쏘련대사관에서는 대단한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쏘련의 당과 정부의 요직들이 인디아를 방문할 때마다 비슈와나스를 잊지 않고 소개하는 정도였다.

월간으로 창간되였던 《쏘베트 땅》은 196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반월간으로 되여 월에 2번씩 발행하였으며 뉴델리, 뭄바이, 콜카타, 마드라스를 포함한 여러곳에 그 지부를 두게 되였다. 그러다나니 이 잡지에 종사하는 100명에 가까운 직원을 대사관에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시간은 빨리도 흘러갔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언제나 모자랐고 긴장하였다. 그렇게 1950년대가 흘러갔다.

이 년대에 비슈와나스는 많은 경험을 얻었고 지식을 쌓았다. 이 년대에 정신도 육체도 기업도 크게 장성한 그에게 있어서 국가적인 회사의 정식 창립은 이미 사활적이며 성숙된 요구로 나섰다.

1961년에 《인터라즈》는 드디여 나라의 인정을 받고 국가에 정식 그 이름을 등록하게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인터라즈》가 거처하고있는 그 기업쎈터청사의 4층과 5층을 모두 임대하였다. 앞으로는 그 청사를 통채로 살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는 아싸프 알리거리를 떠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것은 이 거리가 위치상 구델리와 뉴델리의 경계점에 있었기때문이였다. 앞문을 열면 뉴델리였고 뒤문을 열면 구델리였다.(뉴델리→새델리)

교통상중심지는 언제나 사람들을 끌기마련이다. 특히 상업적목적을 한 건물은 이런 위치가 명당자리인것이다. 사실 그의 주머니는 그 기업쎈터의 주인보다도 더 불어나있었다.

5층으로 된 그 건물은 오늘도 손색이 없다. 건물의 면적은 2 500평방이며 한층이 800평방이나 되였다.

비슈와나스는 여러 어종에 따르는 번역원들을 비롯하여 광고의 설계, 편집, 그림, 인쇄 등을 자체로 할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직원이 151명이나 되였다.

이제는 각 대사관의 외교관들도 사무실에 앉아 당당히 맞이할수 있게 되였다. 화분에 심은 종려나무가 그의 사무실출입문 한쪽에 사철 푸른 잎새를 머리우까지 펼치고있어 방안을 한결 정가롭게 장식하고있었다.

그 종려나무밑으로 나날이 거래건들이 꼬리를 물고 날아왔으며 기업은 눈에 띄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출판인쇄업은 파동이 없었고 그만큼 신용이 담보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처럼 기업들이 제마끔 자기 리익만을 추구하는 난관같은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의 기업은 모두 관영기업이라는데 그 우월성이 있었다.

《인터라즈》는 광고사로서의 두각을 점점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주문자들이 국내외에 날을 따라 늘어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많은 회사들과 개인들이 다 《인터라즈》에 자기들의 광고를 주문하려고 하였다. 또한 신문사들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주문받은 광고를 더 잘 만들기 위해 다시 《인터라즈》에 주문하였다. 《인터라즈》는 주문받은 광고를 설계한 다음 우선 그것을 주문자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좋다 하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방송과 신문사들에 보내였다.

정부에서도 광고주문을 《인터라즈》에 하였다.

정부의 광고내용은 정부의 공적, 정부의 계획, 직업모집, 물부족현상 등 그러루한것들이였다.

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기의 광고를 큰 신문에 낼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의 광고는 작은 신문들에 실리였다. 그것은 정부가 기업들을 다같이 추켜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기를 요구했기때문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모든 신문사들과의 관계를 다 좋게 가지며 일판을 크게 벌려나갔다.

모스크바와 런던을 비롯한 해외의 주요회사들에서도 《인터라즈》에 많은 광고를 주문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라즈》는 점점 나라의 큰 회사로 자라났으며 국내외의 인기를 획득해갔다.

오늘 《인터라즈》는 세계각국에서 출판하는 국제회사들을 소개하는 책들이나 전화번호책들에 다 오르고있다.

그럴만도 한 일이다. 《인터라즈》는 1987년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광고상인 《클리오국제상》을 받았으니말이다. 이 상은 세계에서 유일한 광고협회인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광고협회》가 수여하는 상으로서 《오스카르》상과 맞먹는 상이였다. 《인터라즈》는 인디아에서 이 상을 받은 유일한 회사였다.

이 상의 수여식에는 에쓰. 피. 쵸프라가 갔다. 그의 공적이 적지 않게 《인터라즈》에 깃들어있었기때문에 비슈와나스가 그를 떠밀었던것이다.

오늘 2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운영되고있는 《인터라즈》는 자기의 지부를 전인디아땅의 모든 주(3개의 직할시인 뉴델리, 챤디

가르, 판디췌리를 포함하여 총 32개 주)들과 해외에 두고있다.

업무가 번창해지는데 따라 비슈와나스는 경영자로서 주로 담화만 하였으며 많은 시간을 신간서적을 읽고 글을 쓰는데 바쳐갔다.

사람은 지식으로 빛난다.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책은 항상 그의 길동무였다. 사람의 지위는 그가 읽은 책에 의해서 판별된다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자만함이 없이 부단히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자명한 리치인것이다.

그의 우점의 하나는 자기에 대한 자신심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결코 자고자대하지 않는것이였다.

1961년부터 비슈와나스는 《인디안 타임스》의 편집원으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신문은 인디아에서 유명한 정치신문이였다. 1928년 라호르에서 설립되여 존재한것으로 하여 이 신문사에는 면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라의 분렬당시 이 신문사도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그래도 원만하게 뉴델리로 옮겨와 자기의 지위를 잃지 않고 상승의 길을 걷고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이후 이 신문의 주필로 되였다. 그는 많은 원고들을 봐야 하는 분망한 속에서도 매주 1건씩의 글을 써내였다. 주로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론설을 썼다. 그는 신용은 경제적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측면에서도 담보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신용이 있는 사회주의기업들과 련대하고있는 그는 한번 선택한 사회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옹호하고싶었다.

그때부터 그는 여러 정당들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해나갔으며 그들과의 관계를 오늘까지 좋게 유지해나가고있다.

그는 하루 4시간 《인디안 타임스》의 일을 보고 그 나머지시간에는 또 《인터라즈》의 일을 보았다. 그래야만이 헤쳐갈수 있는 세상이였다.

그는 젊음을 불태워 인생의 탑을 부단히 쌓아올려갔다.

비슈와나스는 기자학과 광고업을 다같이 걸머지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이렇듯 비슈와나스의 이름은 1960년대 초엽부터 광고업자로서,

기자로서 국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비슈와나스는 《인터라즈》지부를 모스크바에 정식 개설하였다.

또한 그해에 비슈와나스는 《델리광고구락부》를 조직하고 그 창시위원장으로 되였다.

1964년에는 《인디아전국광고사협회》를 조직하고 또한 그 창시위원장으로 되였다.

그 조직은 뉴델리와 뭄바이를 비롯한 인디아의 모든 주들에 다 있는 광고사들의 주인들을 망라한 상설기관으로서 나라의 광고운영의 통일성을 보장할 사명을 띠고있었다.

그는 《인디아표준광고협회》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10여년어간에 비슈와나스의 이름은 허물수 없는 《인터라즈》의 대명사로 다시말하여 나라의 광고명맥을 틀어쥔 실권자로 알려졌으며 또한 그는 현대 사회주의정치의 론설가로 명성을 떨치며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되였다.

1965년에 이르러 비슈와나스는 쓸만한 집을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관계인물들이 늘어날수록 그는 주택도 자기의 체모에 어울리는것으로 따라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래서 장만한 집이 오늘까지 살고있는 집이다.

그는 그레이터캘라슈(산이름. 히말라야산줄기의 한 부분)거리에 있는 주민지역의 한 부지를 사서 거기에 집을 지었다. 그곳은 뉴델리의 남쪽에 치우쳐있는 지대로서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살고있는 경치 좋은 곳이였다. 말그대로 부자촌이였다.

집의 면적은 500평방, 층수는 3층.

작지 않은 저택이였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여났다. 장미, 코스모스…

비슈와나스는 집둘레에 크지 않는 나무들을 심었다. 그리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정원에 키큰 뽀뿌라나무 3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는 길길이 자라 그 집의 보초인듯, 상징인듯 하늘을 치받으며 오늘도 설레이고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름답다. 그런 사람은 래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때문이다.

주택은 그만하면 되였다. 요란한 개성따위는 없어도 자연의 풍경이 미를 돋구면 그만이였다.

이만하면 방갈로(인디아에 영주하고있는 유럽인들의 별장)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독립전 라호르에 있을 때부터 방갈로를 보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분명 땅은 자기 나라 땅인데 왜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국인들이 와서 더 좋은 집을 짓고 호화롭게 살며 으시대고있단 말인가.

그 집들에는 인디아사람들의 집에는 없는 휘황한 전등불빛이 방안에 가득차있었고 바닥에는 아릿다운 고급탄자가 깔려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이만하면 본국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방갈로를 누를수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다시는 식민지의 운명을 걸머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것이 곧 애국심이라고 그는 자기나름으로 생각하였다.

자기의 능력과 학문 그리고 자기의 수완에 대한 자부심을 안고있는 그에게는 제나름의 배짱과 자유분방성이 너무도 풍부하였다.

명예는 젊어서부터 잘 거두라고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떳떳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고싶었다.

이때 그는 여섯자식의 아버지였다.

1949년에 첫딸을 본 후 2～3년을 사이로 5명의 아들이 주련이 태여났던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안일 샤르마, 쑤닐 샤르마, 무케시 샤르마, 나비쉬 취바, 라줴시 취바였다.

셋째아들까지는 성을 샤르마라고 했고 다음 두 아들은 성을 취바라고 했다. 증조부를 리쉬 샤르마라고 부르는 한편 그저 취바라고도 불렀던것이다. 그래서인지 조부는 성을 샤르마라고 했고

아버지는 또 성을 취바라고 썼다.
실지로 아버지의 형제들도 그리고 비슈와나스의 형제들(7남매)도 두 성을 제마끔 쓰고있었던것이다.
왜서 한가문에서 성을 두개로 쓰게 되였는지 모를 일이다. 혹시 그것은 증조부가 자기 대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가문을 늘이려고 생각한데로부터 시작된것이 아닌지.
샤르마가문에서 그 어느 성도 쓰지 않는것은 오직 비슈와나스 혼자뿐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선조의 두 성을 다 물려주었다. 어디까지나 족보는 족보인것이다.
1965년에 막내아들이 한돌에 잡히였다. 그 자식들을 키우느라 싼또쉬 꾸마리는 꼼짝 못하고있었다. 신앙심이 지극한 그는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쉬바신》에게 빌고 빌며 자기 할바를 성실하게 해나가고있었다. 그는 말없이 사랑에 넘친 인생을 보내는 고결한 녀성이였다.
두르가데비는 그러한 며느리를 더없이 귀해하였다. 그 할머니가 손자들을 고와하여 그리고 애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차례차례로 데려가서 얼마간 키워주기도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고향마을에서 부모를 모셔왔다. 부모도 이제는 환갑이 지났으니 모셔올만도 한것이였다. 하지만 그의 부모들은 집구경을 한 다음에는 곧 고향마을로 내려갔다. 아직은 고향에서 땅냄새를 맡으며 사는것이 더 마음 편하다는것이였다.
한생을 살아온 고장을 쉽게 떠나려 하지 않는것은 늙은이들의 공통된 심정인것 같다. 그것도 그럴것이겠지만 그들에게는 또한 광활한 령지가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우리 취바박사, 우리 비비라고 불러주는 친근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제는 선친의 계렬들도 하나 둘 떠나가고 바드리 나트 취바와 두르가데비가 제일 큰 어른이 되여 땅을 경작하는 친척들에게 사리를 따져가며 수확물들을 분배해줘야 할 지위에 이른것이였다.
그때부터 그의 부모들은 농한기마다 뉴델리에 올라와 그 기간의 아들의 활동을 들으며 세상을 가늠해보군 하였다.
자기 평생은 부지런하기에 달렸다.

자력으로 크게 일떠선 맏아들이 대견하였다. 그러나 두르가데비는 큰사람이 된 아들에게 항상 타이르군 하였다.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되느니라, 제 시간에 출근해라, 그리고 제때에 돌아오라…

어머니의 그 말은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헛눈을 팔지 않고 길을 곧바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훈령과도 같은것이였다.

어머니의 음성은 비슈와나스의 걸음걸음에 항시 울리고있었다.

부모들은 얼마 안있어 다시 고향마을의 령지로 내려가군 하였다.

인디아에서 밀은 11월과 12월에 종자를 뿌리고 대체로 그 이듬해 4월에 가을을 하며 강냉이는 6월에 심고 9월에 거두어들인다. 그 계절에 그의 부모들은 움직일수가 없었다.

가문의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밀이 2 000톤가량 되였으며 강냉이가 500톤정도 되였다. 그 생산물을 두르가데비가 적극 활동하여 다 팔군 하였다. 그리고 그 돈을 의견없이 생산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했다. 그 재산의 총관리와 회계는 200여명이나 되는 샤르마가문을 통솔하는 《정치》와도 같은것이였다.

사실 그것은 헐치 않은 일이였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족속들은 가족단위로 자기 몫이 더 있어야 한다고 날이 갈수록 점점 언성을 높여가고있었다. 두르가데비는 저마다 자기네가 옳다고 하는 그 많은 친척들을 한사람한사람 만나 서로서로 리해시키고 화해시켰다.

만약에 서로 다른 리해관계를 가진 이 사람들을 끝까지 리해시킬줄 아는 아량있는 이 할머니가 없었다면 가문의 령지에 명줄을 걸고있는 친척들사이에 그 무슨 싸움이 벌어질런지도 몰랐다.

비슈와나스의 부모들은 고향의 령지를 비워놓고 마음편히 자식의 집에 와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농번기때면 비슈와나스가 부모를 뵈오러 갔으며 그때마다 고향마을의 령지를 돌아보군 하였다.

비슈와나스가 나타나기만 하면 고향의 친척들은 줄레줄레 따라다니며 그에게 그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하였다. 그것은 그가 령지의 틀림없는 세속자이며 또한 도시에 나가 크게 성공하고있다고

말들이 돌아가기때문이였다.

판도리비비마을에는 비슈와나스와 6촌간이 되는 마노하루가 있었다. 마노하루의 할아버지는 비슈와나스의 할아버지 동생이였다. 계렬로 보면 비슈와나스가 가문의 장손으로 되여있지만 나이는 마노하루가 1년 우였다.

마노하루는 비슈와나스에게 영농물자같은것들을 요구하였다. 농촌사람들은 자력과 저축이라는것을 잘 몰랐고 돈있는 사람에게 매여달리려고만 하였다.

이것 역시 비슈와나스에게 차례진 운명인 모양이였다.

이때부터 그는 한쪽으로는 가문의 이 령지, 이 친척들도 돌보며 부단히 기업을 확대해갔다.

그의 조직자적능력과 수완은 날을 따라 출판보도계와 기업계에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인디아주재의 각 사회주의나라 대사들과 외교관들은 교체될 때마다 비슈와나스를 소개하였으며 소개받은 신임외교관들은 그에게 많이 의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사무실로는 각 나라 대사관들의 방문객들이 수시로 찾아들어 문턱이 닳아질 정도였다.

자기의 명성으로 주위사람들과 가까와지게 된 그는 나날이 왕성한 의욕으로 세계를 더 크게 호흡하며 분발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가지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무수하다고 생각하였다.

아직은 인생의 전반기, 이제 더 가야 할 길은 멀고멀다.

하지만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것인가.

어떤 길을 걷는것이 자기자신은 물론 조국과 인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길을 걷는것인지 아직은 그자신도 가늠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의 두루미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저 하늘에로 더 세차게 날아오르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인간이라면 목표와 희망이 숭고하고 아름다와야 한다고.

그는 자기가 기업에서 일정하게 성공을 하였다고는 말할수 있겠

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으로서의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물론이다. 사람이 돈과 재부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이나 다를바가 무엇이랴. 돈과 재부는 인간생활의 수단일뿐 그 자체가 인간의 리상과 리념, 지성을 대표한다고는 볼수 없다.

정신적만족은 돈과 재부에 있지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그저 돈을 벌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써버리는 그런 인간으로 살고싶지는 않았다.

일을 해도 그것이 력사에서 인차 잊혀지고마는, 아무 의의도 없는 그런 일은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자식들, 친척들외에도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알수 있는 아니, 죽은 후에도 좋은 일을 한것으로 하여 세상에 남아있을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싶었다.

력사는 자기가 번 돈을 인류의 복리와 평화를 위해 다 바친 참인간들을 기록하고있다.

비슈와나스 역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보다 사회적인 일을 하고싶었다.

그는 자기의 조국, 넓고넓은 인디아의 곳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방황하고있는것을 보고있었다. 그들은 《극락》을 누리는 《천당》에 가기 위하여 사회적차별과 불평등을 참는데 습관되여있었다.

그들은 전세에서 범한 《죄악》을 씻고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제나 《신》을 우러러 빌고있었지만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를 보내는 일은 결코 없었다. 오히려 《신》은 돈없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화를 더 많이 가져다주는것이였다.

그는 조국의 이 현실을 외면할수 없었다.

아, 나의 조국 넓고넓은 인디아가 제 발로 살아갈수 있게 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그는 그 방도를 찾아 세계를 돌아보고싶었다.

세계를 알 때만이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나라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게 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가 아닌가.

더 많은 나라들을 알고 더 많은 지도자들을 알고 이 세상에 배

회하는 모든 리념과 주의주장들을 다 알고 그다음 자기의 일가견을 세워보고싶었다. 적어도 자기 조국을 위하여 세계에 맞서보자면 그래야 했다.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에 날고있는 두루미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끌없이 나래를 퍼덕이기만 하였다.

2. 새로 사귄 벗들

생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다.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그날에 자기가 세상에 태여났기때문이리라.

마찬가지이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게 있어서도 그 창립일이 가장 뜻깊은 날로 되는것이다. 역시 그날이 있어 그 모체가 세상에 산생되였기때문이다. 나라도 자기의 건국일이 있어 이름이 있고 력사에 새겨지는것이 아닌가.

그런 날에 마주앉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순간에 친구가 되여 인차 휩쓸리게 되는것이 아마 생활인듯싶다. 어느 한 사람의 생일날에 마주앉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어느 한 집단의 창립일에 마주앉은 집단들은 그 집단들끼리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건국일에 마주앉은 나라들은 그 나라들끼리…

1965년 11월 7일이였다.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은 해마다 그랬듯이 이해에도 자기의 나이 48돐을 맞으며 각 나라의 대표부들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외교관계가 비교적 많은 인디아에 주재하고있는 쏘련대사관은 이날에 더욱 활기를 띠고있는듯싶었다. 붉은기가 창공에 나붓기는 쏘련대사관의 지붕밑으로 인디아의 각료들과 이 나라 주재 각국의 외교관들, 이 나라를 방문중인 여러 나라의 사절들이 흥성이며 들어갔다.

비슈와나스는 아브둘 말라크와 함께 면목있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속에 섞여 들어갔다.

아브둘 말라크는 1952년 알따브 후쎄인의 결혼식장에서 사귄 친구였다. 그때 비슈와나스는 련락을 받고 라호르로 갔다. 알따브 후쎄인은 라호르에 있는 처녀와 사귀여 결혼을 하게 된것이였다.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다.

알따브 후쎄인의 친구인 아브둘 말라크는 곧 비슈와나스의 친구로 되였다. 아브둘 말라크는 무슬림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 역시 알따브 후쎄인처럼 처음에는 인디아사람이였는데 지금은 파키스탄국적을 가진 사람이 된것이였다.

뒤머리를 길게 하고 너부죽한 얼굴에 코수염을 기른 그는 척 보매 멋쟁이신사를 방불케 했으나 지내고보면 참으로 텁텁하고 정열적인 인간이였다.

그는 알따브 후쎄인과 가까운 친구였지만 성격은 다른데가 있었다. 알따브 후쎄인은 조용하고 학구적이고 한자리에서 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성격이였지만 아브둘 말라크는 말도 잘했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였다.

맑스주의를 전공하고 직업적인 사상가로 나선 그는 쏘련대사관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는 비슈와나스와 인차 결합되였으며 자주 뉴델리에 와 서로 만나고있었다.

그들은 다같이 쏘련대사관을 상대하고있었다.

대사관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연회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사관복도의 진렬장우에 주런이 놓인 도서들중에서 마음나는것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화기애애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언제나 도서와 사진들의 전시는 분위기조성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항목인듯싶었다.

《쏘베트 땅》도 창간호부터 진렬되여있었다. 이 잡지도 이제는 어언 18년이라는 자기의 나이를 가지고있었다. 그 나이는 2차세계대전이후의 사회주의쏘련을 따라온 비슈와나스의 나이이기도 하였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일거리를 찾아 바라캄바의 거리에서 기웃거리던 그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이렇듯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에 자못 감회도 새로운것이였다.

이때 에피모브가 기다렸다는듯이 그들앞으로 다가왔다. 서로서로 악수를 나누며 모두가 반가와하였다. 매일 만나도 반가운 그

들이였다. 그 기간 에피모브는 본국에 소환되였다가 얼마전에 다시 쏘련대사관의 참사로 왔던것이다. 18년전 공보부를 책임졌던 그는 그때 비슈와나스를 만나 실적을 올리였고 비슈와나스 역시 그를 만나 사회주의문턱을 처음으로 넘어서게 되였던것이다.

그런 연고로 하여 그들은 국적은 달라도 끊을수 없는 인생의 길동무로 되였다.

《알고들 지내게. 새로 개설된 조선령사관의 1등서기관 장경일선생이네.》

에피모브는 함께 온 사람을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앞으로 내세우며 소개하는것이였다. 그때에야 그들은 에피모브가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 왔다는것을 알았다.

같이 온 사람은 보매 30전의 젊은 나이였다. 에피모브보다 키는 좀 작았는데 몸은 좋은 편이였다.

《알게 되여 반갑습니다.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조선사람은 의외에도 힌두어발음을 손색없이 아주 잘하는것이였다. 에피모브도 영어는 능란하였지만 힌두어는 그에 따르지 못하였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가식도 없이 겸손하게 말하는 그의 틀진 자태에 모두는 스스로 마음이 끌리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이미 쏘련대사관을 통하여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에 대하여 파악하고있은듯싶었다.

《비슈와나스입니다.》

《아브둘 말라크입니다.》

새로 사귄 벗들은 서로가 손을 맞잡았다. 새 사람을 사귄다는것은 그자체가 하나의 새 생활인듯싶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첫 사람을.

비슈와나스는 조선의 외교관과 처음으로 대면하였다. 아브둘 말라크도 마찬가지였다. 다시말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장경일은 새로 사귄 벗이였으며 새로 사귄 나라였다. 쩍 벌어진 어깨가 그의 진중함을 말해주는듯 하였다. 첫눈에 믿음과 친숙감을 느끼게 하는 인상이였다. 그것은 단지 피부색이 같은 한대륙의 민족이라

는데서 오는 그런 느낌만이 아닌듯싶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에피모브는 이들을 연회장으로 이끌었다. 이미 한탁에 좌석을 정해놓은 그였다. 네사람은 둥그런 식탁을 마주하고 앉았다. 조선, 인디아, 쏘련, 파키스탄 이렇게 네 나라가 마주앉은셈이였다.

인디아외무상과 쏘련대사의 공식적인 연설이 있은 후 연회는 흥성이기 시작하였다. 연회장에서의 상봉과 대화는 언제나 시작부터 친숙하고 즐겁게 번져지는것이였다. 그래서 연회라는것이 있는지.

그들은 술을 많이 하였다. 네사람은 태고적에 만난 친구들인듯 허물없는 사이가 되여 말을 주고받았다.

오늘의 새 손님인 《조선》을 위해 들자며 그들은 마셔댔다. 아마도 그들은 첫 상봉의 의미는 우선 즐겁게 마시면서 인간을 사귀고보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인지.

료리에 대해, 술에 대해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가지를 뻗어 요즘 인기를 끄는 도서들에 대해 그리고 화살이 집중되는 세계적문제들에로 번져져갔다. 역시 그들은 외교관들이였으며 사상가들이였다.

에피모브는 조선에 대한 영상이 아주 좋았다.

그는 동방의 나라 조선이 비약적으로 일떠선데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에게는 조선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는 아주 가까운 동료가 있는데 그와 함께 1960년대초에 조선을 한번 방문한적이 있다고 한다.

조선은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에게 있어서 아직은 생소한 나라였다. 조선은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다는것, 조선인민은 미제와 싸워이긴 영웅적인 인민이라는것, 이것이 조선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있는 상식의 전부였다.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나는 아직 조선에 대해선 잘 모르네. 그러나 〈조선〉은 아네. 한번 들어보겠나?》

그는 짐짓 무대에 나선 인상을 지으며 웅글은 목소리로 읊조리는것이였다.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에피모브와 장경일, 아브둘 말라크는 다같이 박수를 쳤다. 그 시는 세계에도 알려졌으며 특히는 인디아인민들과 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애독되는 시였다.

타고르의 이 시를 그들은 알고있었다.

이 시의 창작경위는 다음과 같다.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그때 도꾜에 있는 조선의 《동아일보》지국에서는 그를 초청하여 좌담회를 가진 후 기념으로 되게 시 한편을 써줄것을 부탁하였다.

《타고르선생의 주옥같은 시 한편을 얻는다면 무상의 영광으로 될것입니다.》

한참이나 생각을 더듬으며 기자들을 둘러보던 타고르는 펜을 꺼내들더니 하얀 종이우에 시를 써내려갔다. 그 시의 제목이 바로 비슈와나스가 읊은 《조선》이였다. 그때 그 사람들속에서는 찬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으로 훌륭하오!》

《타고르선생만이 쓸수 있는 명구요!》

혀를 차며 칭찬하는 기자들에게 타고르는 말하였다.

《민족의 수난은 인디아나 조선이나 마찬가지요. 앞으로 조만간에 이 수난은 사라지고 광명이 우리들의 머리우에 비쳐올것이요.》

또다시 박수가 터져올랐다. 이때 옆에 몰켜서있던 일본기자들중 한명이 청을 들이댔다.

《타고르선생,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한수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이렇게 반문한 타고르는 잠시 생각하는듯 하더니 돌연 열기띤 목소리로 웨쳤다.

《시는 심장의 웨침이요! 심장이 웨치지 않는데 무얼 가지고 시를 쓰란 말이요.》

이날이 바로 조선과 인디아가 다같이 식민지노예의 멍에에 짓눌려있던 1929년 3월 28일이였다.

시에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에 대한 찬양, 지금은 비록 꺼진 《등불》로 되였으나 반드시 다시 일떠서 동방을 빛내여줄 조선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인디아인민들의 확신이 노래되고있었다. 참으로 이 시는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지향하는 인디아인민들과 조선인민의 친선단결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 의의있는 작품이였다.

이 시 하나면 되였다. 이 시에 비슈와나스의 심정도 다 깃들어있는듯싶었다.

비슈와나스가 이 시를 사랑한것은 그것이 단순히 조선에 대한 시이거나 이 시를 자기 조국의 저명한 정치가인 인디라 간디가 즐겨한다는 리유에서만은 아니였다.

위대한 시인을 리해하는 능력은 그의 재능과 거의 맞먹는다고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평시에 시인의 통찰력을 깊이 감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였다.

타고르가 일찌기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인정하고 그 밝은 래일을 예언하여 다시한번 켜진다고 한 그 등불은 오늘의 조선이 아닐가.

타고르의 시를 애독하면서 그는 항상 이런것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조선의 벗을 처음으로 사귀게 된것이였다.

이 시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속뉴대는 이미 맺어진것이나 다름없었다. 어제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걸머졌던 두 나라의 사람들이 오늘은 다같이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한성원으로 이렇게 마주앉은것이였다.

력사는 언제나 자기 발전의 궤을 따라 흐르기마련이다.

네사람은 또 잔을 찧었다. 이번에는 좋은 시를 읊은 《인디아》를 위해서였다.

《그래 등불이 다시 켜졌나?!》

아브둘 말라크가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화답하듯 그저 고개만을 끄덕이며 눈웃음을 짓는 장경일.

역시 그는 우람한 그 몸집처럼 흐트러지지 않을 형이였다. 에피모브가 성격그대로 괄괄하게 말하였다.

《동방의 밝은 빛이 타오르고있네.》

《그렇다면 동방의 그 밝은 빛을 위하여!》

비슈와나스는 잔을 높이 추켜들었다. 네개의 잔이 또다시 식탁의 한가운데서 맞부딪쳤다.

연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는 조선의 총령사에게 소개되였다. 쏘련대사가 조선총령사에게 비슈와나스의 사업방식이며 생활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조선총령사는 말하였다.

《나는 선생들을 우리 령사관에 초청합니다.》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는 그 초청에 쾌히 응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인디아주재 사회주의나라대사관들에는 다 드나들고 있었으니 새로 개설된 동방의 이 사회주의나라 령사관에 가보는것이 응당한것으로 여겨졌다. 첫 인상에 참으로 친근하고 근면하게 안겨오는 조선사람들이였다.

이렇게 그는 쏘련의 국경절에 당시 사회주의나라들의 모임장소와도 같았던 그 나라 대사관에서 조선의 벗들을 새로 사귀게 되였다.

그날은 그의 인생렬차가 밝은 빛이 흐르는 동방에서 새롭게 뻗어나온 궤도에 다가가고있음을 예고하는 종소리가 서서히 울린 날이였다. 아브둘 말라크 역시 다를바 없었다.

하지만 그 빛, 그 종소리를 아직은 누구도 볼수도 들을수도 없었다. 그런 빛, 그런 종소리는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가늠할수가 없게 소리없이 가슴속에 스며드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세월이 퍽 지난 다음에야 그때 이미 자기의 가슴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그 운명의 빛, 운명의 종소리를 추억속에 가늠하게 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의 마음속의 두루미는 그냥 훨훨 날고있었다.

3. 첫 기사

인간이 이렇게도 숭고해질수 있을가.

비슈와나스는 지금 자기의 마음이 참으로 숭고해진다고 생각되였다. 그것은 며칠째 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서들이 안겨준 충격때문이였다.

얼마전 조선령사관을 방문한 비슈와나스와 아브둘 말라크는 조선사람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장경일과도 우정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그의 첫 인상은 외유내강한 사람들이라는것이였다. 확실히 조선은 무엇인가 강렬한 자기 정신을 가지고 힘차게 약동하고있었다.

분명 동방의 밝은 등불은 다시 켜졌다. 이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을 다 대상하고있는 그의 가슴속에 스스로 젖어드는 생각이였다.

그의 앞에는 조선령사관에서 가져온 몇권의 책이 놓여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인차 읽어볼념을 하지 않았던 책들이였다. 그 어떤 이름난 학설에도 확 당기지 않고있던 그로서는 충분히 그러할만도 한 일이였다.

그러던것이 영국에 갈 일이 생겨 그는 그 책들을 가방에 넣었다. 뉴델리에서 런던까지 9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는 그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들었던 그 책들은 점점 시간이 모자라게 비슈와나스의 심혼을 끝모를 세계에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그는 읽을수록 그 책들에 심취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그 책들을 거듭 읽었다. 그 책들을 통하여 그가 정립한것은 현대조선의 력사는 수령의 력사라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파키스탄에 전화를 했다. 아브둘 말라크도 그때 조선령사관에서 같은 책들을 가지고갔던것이다. 비슈와나스의 전화를 받은 말라크도 그와 같은 소견을 가지고있었다.

조선의 수령 **김일성**!

읽을수록 위대하게 안겨오는 그이의 혁명생애를 두고 생각이 깊었다.

자기의 가문은 증조부때부터 광활한 령지를 상속받았는데 조선의 수령은 증조부때부터 상속받은것이란 소작살이와 민족수난의 비극이 드리운 빼앗긴 나라였다.

그이는 1912년에 탄생하시였다.

지구상의 근대력사에서 참으로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였다.

같은 식민지에서 태여나 자기는 대학으로 갔는데 그이는 나라를 찾으려 손에 총을 잡았다. 자기의 가문은 물려받은 부동산을 꾹 쥐고 그만하면 빼앗긴 나라에서도 굶지 않고 살았는데 그이의 가문은 모두 나라찾는 길에서 목숨을 바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초대총독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우리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죽든가 그 어느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언하였지만 그이는 일제를 때려부시는 싸움의 길에 용약 떨쳐나서시였다.

나는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글로만 호소하였는데 그이께서는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0성상 비바람, 눈바람 다 맞으시면서 기어이 조상의 숙망이였고 인민의 념원이였던 나라의 해방을 안고오시였으며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또 한차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말끔히 가시고 그 면모를 몰라보게 일신시켰으며 조국땅에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우시였다.

그이의 생애와 활동은 확실히 다른 사회주의나라의 수반들과는 류다른데가 있는것이였다.

김일성! 그이이시야말로 차례진 운명에 순종한 인간이 아니시였다.

참으로 그이는 숙명을 맞받아 뚫고나가신 민족의 영웅이시였다. 본받아야 할 위대한 인간이시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단정할수는 없었다.

당시 워싱톤대변인들을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조선에 대하여 《전쟁상처를 가시지 못한 페허국》이라느니 《사람들이 조폭하여 신변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나라》라느니 하면서 별의별 악선전을 다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것은 선뜻 믿지 않았다. 그는 조선에 대하여 아는것이 너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책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훌륭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따쓰통신사 기자들과 조선에 가본 사회주의나라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선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김일성**원수는 위대한분이시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김일성**원수는 조선해방을 위해 싸우신 민족의 장한 아들이시며 세계평화를 수호하시는 진정한 국제주의자이시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에 대해 알고싶었다. 그는 곧 조선의 사절들을 《인터라즈》에 초청하였다. 이렇게 되여 이번에는 그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조선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였다. 그들은 새로운 도서들을 또 가지고왔다. 그것은 비슈와나스가 부탁한 《**김일성**선집》과 조선을 소개한 소책자들이였다.

조선총령사와 1등서기관은 《인터라즈》에 수많이 전시되여있는 도서, 잡지들을 보고 내심 놀랐다.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 로므니아, 벌가리아, 마쟈르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소개한 그 책들은 비슈와나스가 《인터라즈》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10여년간 출판해온것들이였다.

쏘련과 벌가리아를 선전한 도서가 제일 많은듯싶었다. 모름지기 그것은 《인터라즈》의 주인이 그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들이 《인터라즈》와의 사업을 잘한데 기인될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무엇을 숨기랴. 모든 외교사절들이 주재국에서 자기 나라의 훌륭한것들을 소개선전하려고 한다는것을. 그래서 기자, 언론인들과 출판업자들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는것을.

하지만 그들의 노력 하나만 가지고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보다 실질적인것은 주재국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데에 영구성이 담보되여있는것이였다.

조선총령사는 비슈와나스가 사회주의나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숨김없이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해줄것을 바란다는 마음의 비침이였다. 인디아의 이름있는 정치신문인 《인디안 타임스》의 주필이며 세계에 그 령역을 뻗치고있는 《인터라즈》사장인 비슈와나스만한 적임자가 쉽지 않은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오찬을 마련하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그는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그대로 터놓았다.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책을 출판하겠는가 하는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가 사회주의를 선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인정하기때문입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 되였는데 앞으로 더 연구하여 내가 할 일은 내가 결심할것입니다.》

역시 비슈와나스는 비슈와나스였다. 그는 그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 할줄을 몰랐고 또 틀을 차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였다.

우람한 체구와 검불그스름한 청동빛의 얼굴이 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지도 몰랐다.

그후 그는 조선사람들과 보다 친숙하게 지내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갔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글만은 쓰지 않았다. 신문, 잡지들에는 사회주의나라들을 소개하는 그의 글들이 계속 나가고 있었지만 조선에 대한 그의 글만은 찾아볼수가 없었다. 리해되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을 방문한적이 없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였다. 10대에 기자활동을 시작한 그가 40에 이른 오늘날에는 나라의 권위있는 론설가로 명성을 떨치고있었으니 충분히 그럴만도 한 일인것이다. 때문에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은 다 감동적이지만 본국의 사람들이 준 책만을 보고 그대로는 쓸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정확한것을 정확하게 써야 했다. 그것이 곧 비슈와나스라고 그는 자기자

신을 철저히 간주하고있었다. 그렇게 그해가 지나갔다.

새해에 들어와서 또 몇달이 지난 4월초의 어느날 뜻밖에도 조선에 대한 그의 첫 기사가 신문에 실리는 날이 왔다.

그 신문은 인디아에서 제일 큰 신문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였다. 수백만부가 발행되는 신문이였다.

거리에서, 전차에서 사람들은 그 신문을 들고 읽었다.

비슈와나스의 기사는 신문의 한구석 광고란이 아니라 한 면을 통채로 채우고있었다. 별의별 뉴스들이 꼬리를 무는 그 사회에서 한 내용의 글이 그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기는 극히 드문 일이였다.

사실 처음에는 그 기사를 어느 한 출판사에 주었는데 그들이 시간을 끌고있었다. 그 출판사와의 관계가 좋았는데도 그들은 그 기사를 심중히 여기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심사가 뒤틀린 비슈와나스는 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의 한 면을 통채로 돈을 주고 사서 실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의 본때는 어디서나 나타나고있었다.

《태양》이라는 제목을 달고 쓴 그 기사는 대인기였다. 그 기사는 조선에 대한 비슈와나스의 첫 기사인 동시에 또한 인디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선을 소개한 기사이기도 하였다. 조선령사관에서는 깜짝 놀랐다.

역시 큰 배는 서서히 움직이는것인가?!

웅심깊은 사람은 자기의 결심을 가볍게 말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그 기사에는 자기들도 다는 몰랐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감동적인 생활일화들이 비슈와나스특유의 섬세성과 론리성을 타고 감각적으로 씌여졌던것이다.

인디아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던 그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알아냈을가?!

누구에겐들 자기 소식통이 왜 없으랴.

흥분된 심정을 안고 조선총령사와 1등서기관은 《인터라즈》를 찾아왔다. 비슈와나스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아무런 인상변화도 없이 할 일을 하고있었다.

희디흰 와이샤쯔를 입고 책이 무둑히 쌓여있는 량수책상앞에 틀있게 앉아있는 그에게서는 역시 실업가보다는 지성인의 체취가 더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감사의 인사를 하는 조선의 벗들에게 그는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였다고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2009년 4월 15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비슈와나스는 그때를 회상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해 4월 15일을 맞으며 그 기사를 썼습니다.

외국인들중에서 **김일성**주석을 태양으로 표현한것은 아마 내가 처음이 아닌가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그런 표현을 본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표현하였기때문입니다. 그후 그이의 수차에 걸치는 접견을 통하여 나는 내가 그이를 태양으로 칭송한것이 얼마나 잘한것인가를 심장으로 새기게 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긍지롭게 추억하군 합니다.》

조선을 방문해보지 않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기사를 썼는가라는 나의 물음에 그는 믿을만한 사람의 체험담을 들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믿을만한 사람의 소개는 인간의 인식활동에서 자못 큰 역할을 하는듯싶다. 누구든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의 소개에 근거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소개는 책보다도 훨씬 신용가치를 가지는것이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또 물어보는 나에게 비슈와나스는 그 사람이 바로 에피모브가 친구라고 한 똘스찌꼬브라고 하는것이였다.

아, 똘스찌꼬브!

나는 놀랐다. 그는 내가 알고있는 로씨야사람이였다. 아니, 그는 조선인민모두가 잘 알고있는 로씨야의 친근한 벗이였다.

참으로 세상은 넓고도 좁은것이였다.

나는 비슈와나스가 우리들보다 먼저 똘스찌꼬브와 손을 잡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의 1세라는데 대하여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것이였다.

나는 리해되였다. 똘스찌꼬브의 말을 들었다면 그가 충분히 그

런 글을 마음놓고 쓸수 있는것이였다. 당시 똘스찌끄브는 쏘련 공산당 국제부 아시아담당 과장이였다. 그가 인디아에 왔을 때 비슈와나스는 에피모브를 통하여 그를 만날수 있었던것이였다.

그렇다면 똘스찌끄브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비슈와나스가 그처럼 흥분되여 조선에 대한 기사를 스스로 썼는가?

독자들의 이에 대한 의문은 나의 체험담을 들으면 충분히 풀릴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똘스찌끄브의 집에서 하루밤을 지새운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한다.

그날은 하늘에 눈구멍이 뚫린듯이 솜같은 눈송이들이 뭉테기로 쏟아지던 1996년 1월 27일이였다.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던 나는 그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웨. 게. 똘스찌끄브의 초청을 받았다.

혼잡을 이룬 모스크바의 거리거리에 무더기로 쏟아지는 눈속을 뚫고 승용차는 시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있는 레브 똘스또이의 동상앞에서 멎어섰다. 그날도 문학의 거장은 소공원에서 쏟아지는 찬눈을 머리에, 어깨에 이고지고 줄곧 《전쟁과 평화》속에 잠겨있는듯 했다.

바로 그 똘스또이의 동상을 마주하고 선 아빠트에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 똘스찌끄브가 살고있는것이였다. 그 아빠트는 이전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살고있는 집이였다.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게있어보이는 그 아빠트현관에 나는 눈을 털며 들어섰다. 어딘가 모르게 정숙이 깃들어있었다.

층계를 올라 초인종을 울리자 기다렸다는듯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는 큰키의 집주인이 마중나오며 뜨겁게 나를 포옹하는것이였다. 그가 바로 똘스찌끄브였다.

《반갑습니다. 동지!》

그의 첫 말에 나는 벌써 마음이 하나로 통함을 느끼였다.

그때는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 이미 무너진 때여서 사회주의시기의 모든 이름들과 함께 로씨야땅에서도 《동지》라는 부름말은 사라져버렸던것이다. 그런데 그 부름말을 나는 그에게서

들었던것이다. 내 조국에선 어디서나 례사롭게 울리는 《동지》라는 부름말이 로씨야땅에선 참으로 값비싸게 울리던 때였다. 《따바리쉬》(동지, 동무)대신에 《고쓰빠진》(각하, 씨)이라는 부름말이 어디서나 통하고있었다.

서글픈 일이지만 로씨야에서 《동지》란 말은 이전 사회주의시기에만 들을수 있는 《낡은 말》로 되였던것이다.

뽈스찌꼬브는 나를 집안으로 이끌며 손들어 바람벽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조선말로 큼직하게 씌여진 《환영》이라는 두 글자가 걸려있었다.

후더운 그의 진정이 나의 가슴에 흘러들었다. 그는 옷도 넥타이도 제일 값진것으로 차리고 앞가슴엔 주런이 훈장들도 달았다.

만민의 어버이 우리 수령님과 한생 인연을 맺고산 그것으로 하여 그는 조선사람들을 이처럼 귀한 손님으로 뜨겁게 맞이하고있는것이였다.

우리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 조국을 떠나서도 나는 이렇게 그이의 전사로 환영을 받고있다는 생각이 불쑥 들면서 저절로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이였다.

기쁨에 넘쳐 활기를 띤 로씨야의 벗은 책장들로 벽을 이룬 복도를 지나 넓은 전실로 나를 안내하였다. 그는 사면벽에 가득찬 각국의 귀중품들중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선물하신 도자기며 수예품들을 각별히 가리키며 소개하였다. 가보로 길이 전할 그 기념품은 가운데자리에 정히 진렬되여있었다.

우리 둘은 기쁨에 넘쳐 마셨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리 수령님을 운명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외국의 한사람이였고 나는 바로 그 수령이 찾아준 조국에서 태여난 그 인민의 한사람이였기때문이였다.

정신적뉴대의 한계는 국경을 넘어서 끝이 없는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둘은 더욱 열렬해졌으며 서로가 흉허물이 없이 속마음을 터놓았다.

그는 나에게 련속 권하며 말하였다. 로씨야사람들은 정말 술

을 좋아하는듯 했다. 그런들 어떠리, 리성의 힘은 폭발적으로 솟구치며 인간을 아름다운 세계에로 그냥 이끌어가는데…

우리 둘은 뿌슈낀이며 똘스또이, 세계적명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을 나누었다. 그 어떤 화제이든지간에 마지막에는 정의와 진리에 관한 결론으로 떨어졌다.

이윽하여 그는 정숙하여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걸출한 정의와 진리의 화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라는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방으로 한번 들어가보자고 했다.

그를 따라 다른 방에 들어선 나는 금시에 눈이 뒤집히는듯 했다. 벽에 가득한 사진들은 나를 흥분이 아니라 격동시켰다.

그 사진들은 1945년 붉은군대 지휘관으로 조선에 나왔던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전쟁시기 《쁘라우다》특파기자로 그가 평양에 있을 때 직접 찍은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영상사진들이였고 또한 1950년대로부터 1990년대초까지에 이르는 기간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들이였다.

또한 그에게는 이외에도 우리 수령님을 직접 찍은 사진들을 가득히 채운 두툼한 사진첩이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처음 보는 우리 수령님의 30대시절의 영상사진들도 많았다.

부러웠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수령님곁에서 기자활동을 한 외신기자로서의 그가 무척 돋보였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의 추억은 매우 귀중한것이였다.

《…나는 가장 평범한 나날들에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왔고 그분과 흉금을 터놓고 인간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기억은 저의 한생에 영원히 추억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상한 견인력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항상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는것이 그분께서 인민을 대하시는 립장이였습니다. …

김일성동지께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실 때에 그분의 손은 항상 정답고 부드럽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심장의 뜨거움을 넘겨받는듯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순수 인간적인 측면에서 벌써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가 즐거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재간도 부리지 않으시고 학자풍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였지만 항상 현명한 사상들을 말씀하시였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마치 그 사상들이 그분의 평범한 생활의 한 부분인듯이 말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성에 대하여 그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활동을 하던 당시의 증명서도 내보이며 보람찬 시절을 긍지높이 추억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발행한 1954년의 년하장도 그는 소중히 건사하고있었다.

1954년!

그해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신심에 넘쳐 맞이한 승리의 새해였다.

정말로 그해의 년하장에는 총을 억세게 틀어잡은 인민군병사의 모습과 함께 《승리의 새해》라는 글발이 씌여있었다.

전후의 세대인 나로서는 처음 보는 년하장이였다. 그것도 조국을 멀리 떠나 외국인의 집에서 보는 감정은 매우 감격스러운 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는 현대조선문학에서 력사소설의 대표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장편소설 《두만강》의 전3권을 다 가지고 있었다. 매 권의 첫장을 펼치면 그의 이름이 조선글자로 큼직하게 씌여져있었고 그아래에는 기증하는 저자의 자필이 있었다. 그 모든것을 그는 소중히 건사하고있었다. 언제나 조선에 마음을 두고사는 귀중한 감정은 그의 생활의 모든 곳곳에 스며있었다.

그는 전후 재더미로 된 평양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어떻게 일떠섰는가에 대하여 선교구역의 청년거리로부터 시작하여 거리이름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보지 못한 그 모든것의 증견자라는것이였다.

그는 1945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를 조선과 줄곧 인연을 맺고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한생을 터놓았다.

…

그의 경력속에는 군인시절도 있고 기자시절도 있으며 당일군

시절도 있었다. 그가운데서도 그가 제일 잊지 못해 그리워하는 시절은 평양주재 《쁘라우다》특파기자로 사업한 청년시절이다. 그 시절에 그는 인생의 다른 장에서는 터득할수 없었던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 시절이 그리울 때면 그는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군 한다. 색은 비록 날았지만 그속에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의 모습이 있다.

당시 그는 《쁘라우다》특파원으로서, 유일한 외신기자로서 《유엔군》의 항복서와도 같은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시고 비준하시는 승리자, 희세의 젊은 령장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운을 지니였다.

부드러우면서도 담대하시고 젊으시면서도 거룩하신 **김일성**동지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은 그때에나 오늘에나 그의 마음속에 비껴있는 그이의 영원한 모습이다.

그는 1951년말 한심하게 파괴된 평양의 반토굴집에 짐을 풀면서 조선을 동정하고 전쟁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본래의 예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견디기 힘들어하는 편은 놀랍게도 미국이였다.

어느날 그는 그렇게도 뵈옵고싶었던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옵게 되였다.

명성에 비해 너무도 젊으신 그 모습에 탄복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운 때 수고를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가족들의 안부까지 세심히 물어주시는것이였다.

그의 얼굴에서 그 기간의 고충을 헤아리신듯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형편과 전망에 대해서, 공화국의 대내외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국제정세의 새로운 측면까지 분석해주시였다.

대범하신 반면에 인정미가 철철 넘치시는분, 이것이 첫 순간에 느껴지는 **김일성**동지의 특징적인 인상이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이긴다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있다고 그의 가슴에 신심을 꽉 채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후부터 그가 쓴 기사에는 진정으로 조선

의 숨결이 실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운 싸움을 령도하시면서도 시간을 내시여 그가 쓴 기사를 보아주시고 잘못 고찰한 문제를 바로잡아주기도 하시였으며 어떤 때는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면서 함께 가자고 이끄시기도 하시였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하기공세》요 《추기공세》요 하면서 대군을 몰아오고있을 때도 **김일성**동지께서는 흔연히 작전대앞을 떠나시여 후방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시여 생산문제를 토의하셨고 농민들과 씨앗도 뿌리시였으며 전후복구건설계획도까지 보아주시였다.

진정 **김일성**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특출한 모든것, 언제나 이기시는 비결은 인민이라는 그 원천에 바탕을 두고 나온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생각을 그는 전승의 축포가 오르고 위대한 **김일성**원수께서 열병식단상에 오르실 때 그 영예로운 모습을 사진에 담는것과 더불어 영원한 기억속에 새겨넣었다.

그이후 1968년 1월 쏘련공산당대표단 성원으로 그가 평양에 왔을 때 누군가가 소개하려 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동무는 소개하지 않아도 내가 벌써 알고있다고, 전쟁시기 《쁘라우다》기자로 우리와 함께 일한 전우라고 하시면서 그 너그러운 품에 따뜻이 포옹해주시였다. 순간 뜨거운 동지애가 그의 가슴속으로 련련히 흘러들었다.

김일성동지!

그이이시야말로 전생애에 걸쳐 모든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력사에 유일한 승리자이시였고 영원불멸한 정의의 화신이시였다.

…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면서 계속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영원히 〈쁘라우다〉기자시절처럼 그분의 곁에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였습니다.

나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히 〈쁘라우다〉시절만을 안

겨주실 그러한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인민을 억세게 일으켜세우신분, 모습도 음성도 **김일성**동지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십니다. …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싶은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후계자문제를 예견성있게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해결하셨다는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바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그리고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재건을 위하여 함께 잔을 들었다.

헤여지기에 앞서 나는 용기를 내여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 조선의 국보중의 국보로 될 그 사진들을 나에게 줄수 없는가고.

그러자 웬걸?!

그는 언제 한밤을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눈 사람인가싶이 그자리에서 딱 잘라 말하는것이였다.

《그것만은 안됩니다. 그것은 그 사진들이 나의 전생애이기때문입니다. 그 사진들은 조선만이 아닌 세계의 최대유산이며 내가 죽어도 대를 이어 물려줄 우리 가문의 가보중의 가보입니다.》

더 말했댔자 필요없음을 나는 직감하였다. 하지만 나의 가슴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이였다. 그것은 그 사진들을 받지 못한 섭섭함에서가 아니라 그의 가슴속깊이에 활화산처럼 굽이치고있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정심에 저절로 감복되였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그 귀중한 원본사진들을 가져올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조선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 이 세상에 더욱 떳떳해지는것이였다.

헤여지면서 우리 둘은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만나고 또 만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자며 뜨겁게 포옹하였다.

이렇게 날이 밝았다. 정문앞의 승용차가 눈속에 묻히운들 그게 무슨 대수랴, 우리의 정신이 아름다운 새날에로 더 높이 나래쳤는데…

조선의 친근한 벗 뜰스찌끄브동지! 그때 그는 일흔하고도 두

해가 지났는데 추억하고 사색하며 일하고있었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이런 사람, 그것도 조선사람이 아닌 쏘련사람의 이러한 체험담을 직접 들었으니 비슈와나스가 조선에 대한 첫 기사를 흥분하여 썼던것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태양이라고 그처럼 높이 격찬했던것이다.

4. 나를 돈으로 살수 없다!

비슈와나스는 놀랐다. 자기가 쓴 글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싸움의 문을 열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타임스 오브 인디아》편집부에 항의가 들어온것이였다. 그것도 조선의 남쪽에서.

비슈와나스는 40살에 처음으로 자기의 글에 대한 항의를 받았던것이다. 남조선대사관에서는 항의만을 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 신문의 한 귀퉁이에 비슈와나스의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까지 냈다.

비슈와나스는 꼼짝안하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20살에는 기지가 지배하고 30살에는 의지가 지배하고 40살에는 판단이 지배한다고 하였다.

생각할수록 참을수 없는 일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분격하였다. 그는 히틀러도배들이 쏘련을 침공했을 때보다도 더 분격하였다. 그것은 그자들이 자기의 명예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을 하였기때문이였다.

명예는 황금보다 더 귀중하였다. 황금은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수 있지만 명예는 훼손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것이다.

기자이며 론평가인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명예를 훼손당하는것은 운명을 희롱받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중대사였다. 침공자들을 단호히 징벌해야 했다.

아, 정의란 무엇인가.

그는 처음으로 이 사회, 이 세계의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였다.

정의는 단순히 자기의 리익을 위해 다른 회사의 리권을 침해하는자들과의 싸움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진정한 정의!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싸움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자유와 평화를 유린하는 교살자들과의 싸움에 바로 진정한 정의가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타자기를 자기앞으로 끄당겨놓았다. 그리고는 두손바닥을 비비였다. 그것은 마치 격전장에 나가는 용사가 총탄을 재우는 모습과 같았다.

그는 문장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의 손끝에서는 아니, 그의 머리속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감동이 뒤섞인 문장들이 줄줄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심장에 불이 달린것이였다. 그는 그렇게 며칠밤을 지새웠다.

이번에는 더 큰 기사를 썼다.

김일성동지의 생애의 한 단면이 아니라 그이의 눈부신 혁명활동의 전생애를 포괄적으로 썼다. 그리고 그분의 초상화까지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이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한면에 실린 그 기사는 대인기를 끌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바빠났다. 그들은 그 글이 자기들의 령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또 반박기사를 냈다. 그자들은 비슈와나스가 쓴 글은 다 가짜라고 하면서 비슈와나스는 쏘련을 위해 복무하고 또 조선을 위해 복무한다며 사람을 걸고드는데까지 이르렀다.

비슈와나스는 보다 심중해졌다. 자기를 걸고들었기때문에 심중하게 대하여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운명을 걸고 싸워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또 썼다. 이번에는 조선전쟁의 발발과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썼다. 조선전쟁의 도발자인 미국이 패배하고 항복을 인정한데 대해 썼으며 그 의의를 특별히 부여하였다.

그 기사는 또 실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근대조선의 력사, 조선의 진실을 알게 되였다.

또 반박기사가 났다.

그다음 신문사의 태도는 달라졌다. 더는 비슈와나스와 남조선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으니 둘다 다른 신문에 가보라였다.

비슈와나스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인디안 타임스》의 매호에 조선에 대한 기사를 싣기 시작하였다. 《인디안 타임스》는 이름있는 정치신문으로서 정부요인들과 주요인물들이 다 보고있었으며 각 지방에까지 발송되고있었다.

신문은 4면짜리 주간이였다. 비슈와나스가 그 신문의 주필이였으니 구애될것이 없었다. 결국 매주에 1건씩 조선에 대한 글이 정상적으로 나가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남조선대사관에서는 제일 큰 신문사에서 접수하지 않으니 어디 저희 기사를 실을데가 없어졌다. 이미 사회적말썽을 일으킨것이여서 그들의 기사를 어디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적극적으로 일했다.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하여 그 신문에 기사를 계속 써냈다. 신문매점들에서는 특별히 부수를 더 보내달라는 청이 들어왔으며 거리거리에서는 신문파는 소년들이 비슈와나스가 써낸 글의 제목을 큰소리로 부르고있었다. 신문부수는 점점 늘어났고 인쇄된 신문은 한부도 남김없이 다 팔리군 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지켜야 할 신문의 사명을 이 기회에 다해보자고 잡도리한듯싶었다. 그는 신문의 힘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있었다.

남조선대사관에서는 조용했다. 그들은 감히 비슈와나스에게만은 주재국의 우익깡패들을 내세워 위협공갈이나 협박전화같은것은 할념을 못하였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는 억대우같은 비슈와나스를 꺾지 못할뿐더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그의 힘에 오히려 저희들이 치울수 있다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물러설자들이 아니였다.

드디여 신호가 왔다.

그놈들은 저희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재국정부를 내세워 압력을 가할 꿍꿍이를 하였던것이다. 공민이 자기 정부의 말은

필연코 듣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그들은 타산하였던것이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다. 그때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는 기자로서 그저 일을 하고있을 따름이라고 대답하군 하였다.

드디여 그는 정부의 호출을 받았다.

해당 관계자들은 말하였다.

《당신 왜 북조선을 소개하는 기사를 계속 써내는가?》

비슈와나스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인디안 타임스〉는 내 신문이고 내 신문에 글을 내는것은 내 할바인데 당신들이 뭘 그러는가?》

관계자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제법 관료티를 내는것이였다.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할 사람들인가?》

《말을 하려면 똑똑히 해야지. 사실을 보도하는것은 나의 직업이고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초보적인 인권이라는것을 당신들은 모르는가?》

론리정연하게 맞서는 비슈와나스앞에 말문이 막히게 되자 그들은 대뜸 소리치는것이였다.

《당신 북조선에 팔렸는가?》

《무엇이?》

인격을 모욕하려 드는 그들을 한주먹에 쳐누르려는듯 비슈와나스는 오른손을 머리우로 들었다가 그 큰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다.

정면돌파였다.

《그래 북조선이 우리 인디아를 걸고든적이 있는가? 당신들이 남조선에 팔린것이 아닌가?》

비슈와나스는 그들보다 더 큰소리로 웨쳤다. 그가 이렇게 성이 난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의 성격에는 대바른 사람들에게서 종종 보게 되는 과격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

역시 그는 실업계인물만이 아닌 기자였다.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있는 그런 사람들은 권력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 누가 접어든다고 하여 쉽게 얻어맞을 비슈와나스가 아니였다. 그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위엄이 풍기고있었다.

시작부터 정정당당한 론거를 내세우며 도고하게 맞서나오는 비슈와나스의 완강한 자세앞에 그들은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비슈와나스가 듣던바그대로 무엇이든 공개적이며 주눅이 전혀 없는 남자라는 인상이 강하게 안겨왔다. 그와 같은 사나이의 말에는 빈말이 없는것이다.

인디아 보도계와 실업계에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승승장구하고있는 비슈와나스의 영향력이 오래전부터 친교를 맺고있는 인디라 간디(그는 그해부터 수상이였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수 있으랴.

인디아정치체제에 의하면 실제적인 행정관리와 정부의 활동은 수상이 집행하고있다. 대통령은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지만 권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대통령은 행정관리와 정부의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고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과 정부관리의 임명안을 비준 혹은 부결할 권리와 총선거가 결판나지 않을 경우 하나 혹은 여러개 정당을 지적하여 내각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수상과 친교관계를 가지고있는 비슈와나스와 조금 더 엇서나아가다가는 일이 시끄럽게 번져질수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들은 더 어쩌지 못하였다. 사실 그들은 리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비슈와나스를 당할수가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조선에 대한 기사의 지면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어려서부터 자존심이 높았던 그의 인격을 건드렸으니 그 누구의 도전에 부딪쳤다고 하여 한번 내친 걸음을 멈출 그가 아니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잠도 자지 않고 글을 썼다. 그 누가 시킨들 그렇게 일할수 있으랴. 이것은 그의 분노의 폭발이였고 정의의 웨침이였고 심장의 가리킴이였다. 그는 한번 마음먹은것을 위해서는 담이 무너져라 하고 떠밀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인디안 타임스》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가 어린시절부터 구체적으로 소개되였으며 또한 혁명일가분들에 대해서도 련속편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대사관에서는 잠을 자는듯 한동안 즘즛하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집에서 신문들을 뒤적이는데 정문에서 전화가 왔다. 외국인 2명이 주인님을 만나러 왔다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아무 생각없이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당시 그의 집에는 이전 쏘련,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나라사람들의 래왕이 잦았던 것이다. 문지기도 그런 사람들인줄 알고 그들을 안내하였다.

비슈와나스가 응접실에 나가니 그들은 반가운체 하며 인사를 깍듯이 하였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조선에서 왔습니다.》

비슈와나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관에 새로 온 사람들인줄 알고 어서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였다. 차가 들어왔다. 인디아풍습대로 펄펄 끓는 차였다. 그들은 저들의 명함장을 비슈와나스앞에 내놓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한국대사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첫 순간에 비슈와나스는 기분이 잡쳤다. 그러나 일단 집에 들여놓은 손님들이라 내보낼수는 없어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다.

《무엇때문에 왔소?》

《언제부터 사장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속에 없는 소리를 곧잘 하면서 가지고온 위스키 한상자(12병)를 내놓는것이였다.

침묵.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비슈와나스였으나 그들이 내놓는것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눈치를 슬슬 보면서 드디여 속심을 터놓았다.

《사장님, 우리 한국에 대한 기사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묵.

비슈와나스의 꾹 다물린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입은 그 어떤 저주의 말을 안고 실룩거리는듯싶었다. 이처럼 낯짝이 두터운 놈들일줄은 몰랐다.

놈들은 주재국정부의 일부 사람들을 삶아 그들을 내세워 비슈와나스를 저지시키려던 저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비렬하

게도 이처럼 전술을 바꾸어 접어드는것이였다. 고개를 숙이고 찾아오면 사내다운 그의 마음이 돌려질수도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던것인지.

그들에게 다른 방도가 없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실현해보자는 그들의 야심이 엿보였다. 참으로 낯간지럽고 뻔뻔스러운자들이였다.

몹쓸놈들, 날보고 사탄이 되라고?

비슈와나스의 가슴엔 분격이 치밀어올랐다.

그자들은 체면도 없이 계속 달라붙었다.

《사례금은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침묵.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퍼부을 저주가 너무도 많아 그는 입을 꾹 다물고있는것이였다. 분격은 치밀대로 치밀어올랐으나 상대가 되지 않는 저속한자들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는가고 생각되였다.

비슈와나스의 이 침묵을 리해하지 못하는자들이 어찌 그의 마음속을 리해할수 있으랴.

지금 비슈와나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저레 쫓아버리고말가 하고 생각하고있는데 그들은 상대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엇바꿔가면서 조심히 계속 주절대는것이였다. 아마 그들은 침묵하고있는 비슈와나스가 망설이고있다고 제나름 생각한 모양이다.

어리석은 놈들, 돈으로 신념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사장님은 북한에 가보았습니까?》

그 말에 비슈와나스의 신경이 한층더 자극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당장 사람들을 불러 내쫓을가 하다가 그는 생각을 달리하며 전화를 천천히 놓았다. 일단 집에 들여놓은 이상 이자들에게도 정확한 인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이들도 사람인것만큼 알아들을 소리는 알아들을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애써 자기의 마음을 누잦히며 솟구치는 분격을 겨우 참아냈다.

이윽하여 그는 조용히 말하였다.

《못가보았소.》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원수에 대한 글을 계속 쓸수 있습니까?》

《책을 보았기때문이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분을 직접 만나뵈온 사람들의 체험담을 듣고 내가 감동했기때문이요.》

비슈와나스는 몇권의 책을 그들앞에 갖다놓으며 손세를 써가며 말하였다. 그 책들은 조선을 소개한 책들과 외국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본국에 돌아가 쓴 인상기들이였다.

놈들은 그 책들은 흥미없다는듯 밀어놓으며 계속 씨벌여댔다.

《사장님을 한국에서 특별히 초청합니다. 손해는 없을테니 한번 가보십시오. 사장님이 우리 남한에 가면 자금도 대주고 기업이 번성하도록 도와줄것을 담보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기업을 하고는 있지만 결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요. 나는 돈에 앞서 이 세상에 진실과 진리를 말해야 할 의무를 타고난 사람이란 말이요. 때문에 나는 내가 정당하다고 한번 믿은 일에서 절대로 손을 뗼수가 없소.》

《그래도 우리쪽에 한번 와보십시오. 요구하는대로 무엇이든…》

그들의 말은 중도에서 끊어졌다.

돈을 걸고 인간의 리성을 흥정하려고 접어드는 그들에 대한 비슈와나스의 분노의 감정이 끝내 참지 못하고 폭발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큰소리로 웨쳤다.

《나는 돈에 운명을 걸고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나는 내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안해!》

《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있는데 이제는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놈들은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당신들!》

비슈와나스는 순간에 약손가락을 펴들어 그들의 눈앞에 꼿꼿이 세우며 말하였다.

《일단 내앞에 왔으면 진실을 말해보오.》

비슈와나스는 두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보다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김일성**원수가 남조선에 해되는 일을 한것이 있는가?》

침묵.

이번에는 그들이 침묵하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슈와나스의 좀전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침묵이였다. 그 침묵은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혀버린 침묵이였다.

《**김일성**원수는 세계가 인정하는분이 아닌가?》

침묵.

《말해보라, 당신들! 내 말이 틀린다면 틀린다고 대답하라.》

침묵.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그이의 투쟁을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있는데 당신들, 같은 민족으로서 그래 감동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들은 종시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비슈와나스의 모든 말이 옳았고 진실이였기때문이였다.

이 순간 비슈와나스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속으로는 뻔히 알면서도 대답할수 없는 그들의 처지가 가긍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뒤에 그들을 보낸자들이 지켜보고있기때문이였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며 대범하면서도 론리적으로 력사의 진실을 말하는 비슈와나스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주저주저하며 말하였다.

《사장님을 우리 대사관에 초청합니다. 우리 행사에도 참석해주고 우리에 대한 글도…》 말끝을 얼버무리는 그들이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 말에는 대답 못하고 저들의 상전의 말만 줄곧 외워야 하는 그들이였던것이다. 꼭두각시에 불과한 그들의 여린 가슴속에는 상전이 준 임무가 정의에 어긋나는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을 끝까지 수행해야 할 사명만이 파들거리고있었던것이다. 그 알량한 사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력사의 진실쪽으로 기울어질 때에는 벌써 그들이 자기의 목을 건사하기 힘들어지게 되는것이였다.

《아니, 나는 내가 납득되기 전에는 당신네 글을 쓸수 없소.》

그들이 떠나간 후 비슈와나스는 그들이 앉았던 쏘파의 한쪽모서

리에 봉투 하나가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펴보니 거기에는 1만루삐의 돈이 들어있었다.

가소로왔다. 이런것으로 나를 낚아보려고?

비슈와나스는 유다가 될수 없었다. 은 30냥에 스승을 고발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 유다!

죽을지언정 배반자의 대명사로 력사에 불리우는 그 유다가 될수는 없었다.

인생을 어이 그런 수치스런 돈으로 얼룩지을수 있으랴.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비할바없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돈이란것은 자기의 손으로 벌었을 때만이 깨끗한것이며 또한 그런 돈만을 마음편히 쓸수 있고 그래야만이 인생이 떳떳해지는것이다.

금전이라는것은 사람이 만든것이지 금전이 결코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탄들을 증오하는 사내였다.

사람은 한길을 가야 한다.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위스키상자까지 차에 싣고 사무실에 나갔다. 그리고는 서기보고 술상자를 다른 상자처럼 잘 포장하라고 일렀다. 돈봉투는 자신이 직접 다른 큰 봉투에 그대로 다 넣고 색갈있는 리봉까지 곱게 했다. 봉투의 겉면에는 그 두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밑에 좋은 선물을 보내주어 고맙습니다라고 썼으며 또 그밑에는 자기의 이름까지 써놓았다. 비슈와나스는 그들이 놓고간것을 자기가 보내는 선물처럼 만들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그자들이 놓고간것을 받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가 아니기때문이였다. 감사의 표시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것이지만 그 무슨 음험한 목적을 가지고 표시하는것은 올가미와 같은것이다.

적이 보낸 례물은 독약이다. 그런것은 백번 되돌려보내야 한다. 그런것을 받아들인다면 인간은 자기의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게 될것이다.

그는 술상자와 돈봉투를 서기에게 주면서 히죽이 웃었다.

《나를 믿고 놓고간것인데 보답해야지.》

그 말을 받아안고 서기는 그것을 남조선대사관으로 날라가 전달하였다.

즉시 전화가 왔다.

남조선대사관에서는 그것을 비슈와나스가 보낸 선물인줄 알고 받았던것이다.

《사장님, 왜 그것을 돌려보냈습니까?》

비슈와나스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돈으로 살수 없다!》

비슈와나스는 정의를 지키는 길에서 물러설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속의 두루미가 날아가는 그 자유와 평화의 하늘이 저절로 쉽게 이 땅에 비껴지지 않으리라는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였다.

그가 갈망하는 자유와 평화! 그것은 정의였다. 그렇다면 그 정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정의의 길은 인간의 자주성을 지키는 길이다. 자주는 곧 인간의 최대의 리념이며 최대의 정의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인민대중은 자주를 열렬히 지향하는것이며 인류력사의 흐름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한길을 따라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그가 사회주의조선을 방문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담보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과 강력한 총대에 있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깨닫기까지에는 아직 몇년세월이 앞에 놓여있었다.

5. 차사고

술은 건강을 위해 한잔 들면 약으로 되련만 무슨 조화인지 사내들은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육체를 혹사하면서까지 마셔댈 때가 있다. 그것이 과연 사내인지.

지금 이 좌석에 마주앉은 사람들은 한계를 오락가락하고있

었다. 그것이 바로 기계아닌 인간이라고 볼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제조한 사람에겐 영웅칭호를 줘야 하네.》

와이샤쯔소매를 걷어올린 유리 뻬뜨로브가 거나해진 눈길로 동료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였다.

《옳소, 옳소.》

그들은 모두 술을 제조한 사람에게 영웅칭호를 주는데 동의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는 또다시 잔을 높이 쳐들었다. 그들은 잔을 짓쫗으며 또 마시였다.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서고있었다. 이들은 지금 뉴델리에서 25키로메터 떨어져있는 홀로디인식당에 앉아있는것이였다.

오늘 유리 뻬뜨로브가 왔다. 모스크바친구는 상품전시회차로 뉴델리에 온것이였다. 오랜 친구이며 동업자인 뻬뜨로브의 방문을 에피모브와 비슈와나스가 어찌 가만앉아 맞이할수가 있으랴. 뻬뜨로브가 더했다. 그는 만나자바람으로 포옹하며 로씨야식으로 어디론가 가자는것이였다. 마실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당시 뉴델리에서는 그 어느 호텔이나 상점들에서 위스키의 판매가 일체 금지되여있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런것에 구애될 이들이 아니였다. 《생명의 물》(위스키란 말은 켈트어로 《생명의 물》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을 찾는 이들에게 조건이나 환경따위가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되여 이들은 승용차를 달려 뉴델리에서 멀지 않은 하리아나주의 타리다바드시로 왔던것이다. 이 도시에서 홀로디인식당은 그만하면 괜찮게 마실만한 곳이였다.

《로씨야에서는 술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선량한 사람들이거든.》

유리 뻬뜨로브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또다시 잔들에 가득가득 술을 부었다. 이윽하여 이들 셋은 다같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자, 이젠 집으로 가야지.》

《가야 하구말구.》

그들은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홀로디인식당의 정문을 나섰다.

비슈와나스는 취중에서도 값을 지불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자기가 유일한 본국의 사람임을 자각이나 한듯이 두 친구를 부축하려고 하였다.

《아니, 우리는 취하지 않았어.》

《여기에는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들은 비슈와나스의 부축을 거절하며 비칠거리면서도 식당정문앞의 층계를 내려 도로에 세워둔 차앞으로 제법 걸어가는것이였다. 그래서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것인지.

그러나 웬걸, 뻬뜨로브는 승용차뒤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두 좌석을 다 차지하고 벌렁 드러눕는것이였다. 집에 다 온것이였다. 집에 다 온것과 동시에 혀꼬부라진 노래소리도 뚝 멎었다.

비슈와나스는 에피모브와 함께 앞좌석에 앉았다.

운전대를 잡은 비슈와나스의 정신도 가물가물하였다. 대체로 그는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로씨야친구들을 태우고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나왔던것이다.

가야 했다. 정신을 차리고 집까지 가는것이 그의 본분이였다. 하루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조등을 켰다. 앞길이 환히 바라보이자 정신이 좀 드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는 발동을 걸며 차를 앞으로 몰아나가기 시작하였다.

차는 삶과 죽음의 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에피모브도 잠들지는 않았다. 그는 눈을 떴다감았다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쓰고있는듯 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대국의 모자를 쓴 외교관인지라 자기의 체모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인지도 몰랐다.

고요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울리는 엔징소리가 잠을 자지 않고 움직이는 광열적인 사내들의 존재를 세상에 소리치며 알리는듯싶었다. 하지만 그 알림이 없었던들 얼마나 좋았으랴.

이 시각 그 소리, 그 알림을 초조히 기다리며 어떤 괴한이 그들의 길목을 지키고있을줄이야 귀신인들 알았으랴.

숨은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

갑자기 앞에서 화물차가 불쑥 불을 켜고 마주오기 시작하였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였다. 길은 좁았다. 충돌이라는것을 생각할 사이도 없이 화물차는 그냥 불을 켜고 산악처럼 왕— 달려들었다.

비슈와나스는 꿈속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본능적으로 조향륜을 왼쪽으로 콱 돌렸다.

그런데?!

그 왼쪽에 또하나의 어떤 괴물이 소리없이 떡 버티고있을줄이야 상상인들 했으랴.

승용차는 거기에 불도 안켜고 서있는 또 한대의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나딩굴었다. 그 차는 사람이 없는 빈차였다. 미리 작성한 대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수 있으랴.

일은 어찌 되였는가.

머리받기를 한 승용차는 형체없이 찌그러졌으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대기를 가르던 발동기소리는 사라져갔다.

사위는 쥐죽은듯.

이러한 속에서 날이 밝았다. 지나가던 차들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꺼내는데 2시간이나 걸리였다. 차문이 열리지 않았던것이다. 사람들은 조심조심 차체를 뜯어냈다. 긴장한 이들은 다행히도 죽지 않고 정신은 붙어있었으나 차와 함께 찌그러진 몸은 도저히 움직일수 없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채 고스란히 병원으로 실리여갔다. 모두가 크게 다치였는데 운전대를 잡았던 비슈와나스가 제일 많이 상하였다. 그는 가슴부위에 커다란 타박상을 받았으며 오른쪽다리의 관절부위가 마사져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 다리에 긴 못을 박아넣었다. 그는 다리를 천정에 매달고 누워있게 되였다. 머리가 깨여져나가지 않은것이 다행이였다.

정신이 들수록 온몸이 쑤셔났다. 그의 얼굴에는 지옥같은 고통이 짙게 어리였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에서 오는것만

이 아니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으며 소년시절 실책을 범했던 그때처럼 잠못들고 자기자신을 준렬히 꾸짖었다.

아, 비슈! 너는 어디로 가려니?

어찌하여 내가 다시 이런 엄청난 실책을 범하고 그날의 그 번민속에 잠기게 되였단 말인가.

비슈! 정녕 너는 어디로 가려니? 낭떠러지인가?

그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것을 생각하게 되였고 기어이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끝까지 가야 하겠다는 강렬한 삶의 충동으로 자기자신을 끝없이 채찍질하게 되는것이였다.

비슈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갈 길을 앞에 두고 쓰러지면 안된다.

그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웨치면서 일어서려고 모지름을 썼다.

사회주의나라 대표부들을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수시로 면회를 왔다. 장경일을 비롯한 조선총령사관의 일군들도 자주 왔다.

어느날 파키스탄에서부터 알따브 후쎄인과 아브둘 말라크가 면회를 왔다.

비슈와나스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라 할 말이 없었다. 모든것이 다 자기의 불찰로 이루어진것이기때문이였다. 하지만 그의 속생각은 끓고있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친구들에게 한가지 부탁만은 절절히 하였다.

《자네들은 나의 친구지! 진정으로 나의 친구들이라면 조선에 대해, **김일성**원수에 대해 글을 써주게. 부탁이네.》

알따브 후쎄인과 아브둘 말라크는 주로 맑스—레닌주의를 해설한 글들과 쏘련을 소개하는 글들을 쓰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은 조선총령사관에 찾아가 책들을 요구하여 한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파키스탄에서도 사회주의조선에 대해 소개하는 글들이 나가기 시작하였다.

전시회차로 1주일 출장왔던 뻬뜨로브는 4개월간 병원신세를 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에피모브 역시 5개월간 병원신세를 졌다.

비슈와나스는 10개월후에야 완치되였는데 수술한 오른쪽다리

는 2센치메터 짧아져 완전히 구부리지 못하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오늘까지도 그 다리가 그렇게 고착되여 평지나 내리막길은 일없지만 올리막길만은 매우 힘들어하고있다.

크리스마스명절을 며칠 앞둔 날에 사고가 났는데 그는 그 다음해 10월말에 퇴원하였다. 퇴원하여 11월 7일 쏘련국경절행사에 태연하게 나타난 그를 보고 각국의 외교관들이 지옥에 갔다왔기때문에 오래 산다고 하며 저마다 인사를 했다.

비슈와나스는 웃으며 말하였다.

《정말 나는 오래 살아야겠네. 그래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가는가를 보여주어야겠네.》

그의 이 말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실 비슈와나스는 지금까지 목숨이 귀중하다는것을 별로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영원히 살아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수 있으리라는 락관속에 인생길을 걸어가고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의 내부에서는 살아서 끝까지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강렬한 삶의 욕구가 새롭게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에피모브와 뻬뜨로브였다. 뻬뜨로브는 비슈와나스도 만나고 전시회도 더 크게 다시 조직할겸 인디아에 재차 왔던것이다. 그후 그는 술잠에서 영원히 깨여났는지 다시는 그렇게 잠들지 않고 비슈와나스와 맑은 정신으로 많은 일거리들을 성사시켜나갔다.

술이 깬 다음에 취했던 일을 상기해봄은 괴로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술은 잘못 마시면 인생의 독소인듯싶었다.

비슈와나스는 다시는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맹세를 다졌다.

그는 실지 술을 좋아하였다. 보통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였다.

감춰놓고 몰래 먹는 정도였다. 술을 너무 좋아하여 처의 통제가 말이 아니였던것이다. 큰 집의 이방저방 곳곳에 감춰놓은 술을 싼또쉬 꾸마리는 모조리 찾아내군 하였다. 녀자의 눈에 술이란것

은 도깨비장물과도 같은것이였다.
생각던 끝에 그는 목욕실에 위스키를 감춰놓았다. 설마 거기까지 감출줄이야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거기서 한모금씩 마시는 재미란!
참으로 그 재미란 이를데없이 고소한것이였다. 이 비밀을 동생에게만 말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있는 사이 그가 그것을 온 집안에 폭로할줄이야.
가정에서는 눈속임이 오래 숨어있을 자리가 없는듯싶다.
그의 술비밀은 들짱났다. 이제는 집안에서 그렇게도 마실수 없게 되였다.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예 술을 끊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였다. 하지만 단번에 끊는다는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술을 끊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스스로의 마음속다짐을 하였다.
그날의 차사고는 비슈와나스의 한생에서 제일 큰 사고였다.
그 사고의 흑막은 오늘까지도 밝혀지지 않고있다. 마주오던 화물차는 그렇게 종적을 감추었고 빈틈없이 대기시켰던 화물차의 주인은 종시 나타나지 않았던것이다.
이 세상은 밝혀지지 않은 크고작은 흑막들의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생활은 보이는 적,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끊임없는 암투였다.
평화로운 때에도 적은 있는 법이였다.
그 누구의 각본일가?
각본치고는 완전히 째인 작품이였다. 그 작품은 성공한 작품이였으며 또한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기도 하였다. 바위같은 비슈와나스의 육체가 종내 부스러지지 않고 더욱 굳세게 두다리를 뻗치고 일어섰기때문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그 누구를 걸고늘어질수도 없었다. 단서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검은 마귀의 손이 자기의 목을 노리고있었음을 직감하였다.
싼또쉬 꾸마리는 《쉬바신》에게 악을 징벌해달라고 빌었다.

비슈와나스는 부모들에게 그리고 처에게, 자식들에게 미안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던것이다.

그날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 이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드놀지 않는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 그날의 쓰디쓴 회오는 강렬한 불씨로 깊이 심어져 한생토록 꺼지지 않는 열화로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그 불길은 타오를수록 한번 택한 길을 끝까지 가고야말겠다는 그의 신념의 촉매제가 되여 그의 걸음을 앞으로 더 빨리 떠밀어갔다.

자기를 해치려고 마귀의 손길을 뻗치고있는자들에게 답례하는 길은 오직 가던 길을 부지런히 더 빨리 달려감으로써 뛰여난 성과를 올리는 그것이였다.

불타는 증오심에 의지되여 비슈와나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의의 붓대를 더 억세게 틀어잡았다. 정의가 멸망한다면 그런 세상에 더는 살 필요가 없을것이다.

뜻을 품은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정의의 앞길에 도전은 필수적인가.

그렇다. 무지개는 번개와의 격전끝에 비껴지고 리상은 투쟁속에 실현되는것이다.

력사는 바로 그 모든 도전을 물리치면서 자기 발전의 정의의 길을 가고있는것이였다.

6. 《자유》의 나라인가, 구속의 나라인가

비슈와나스는 쓰고 또 썼다.

그의 마음속심리는 누르면 솟구치는 힘이 더 강해지는 용수철의 퉁성과도 같았다. 한껏 장약된 사랑과 증오의 화약으로 폭발하는 그의 퉁성을 누가 감히 누르겠다고 나설수 있으랴.

쓰러졌다가 일어선 사람은 배가의 힘으로 용솟음치는듯싶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부단히 대화했고 또 독서했으며 한편으로는 집필을 다그쳐나갔다.

대화는 민첩한 사람을 만들고 독서는 해박한 사람을 만들며 집필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비슈와나스는 《트리뷴》에도 조선에 대한 기사를 싣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결김에 하는 감성의 분출이 아니라 신념으로 받아들인 리성의 폭발이였다.

나라의 분렬과 함께 파산되였던 《트리뷴》은 그 이후 챤디가르에 새롭게 기지를 꾸리고 1950년을 전후하여 재생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880년경에 창간된 신문은 자기의 력사를 그렇게 세월의 풍파에 호락호락 내던지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트리뷴》의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 파라카슈의 행처를 알수도 있지 않을가 하여 물어보았으나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다른 연고는 없었지만 왜서인지 생활의 갈피마다에 드문히 그 처녀가 생각키웠다.

인생의 초엽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끼였던 파라카슈!

잠시나마 한 신문사에 함께 있던 동창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는 그 처녀의 이후인생길을 알고싶었다. 하지만 그 《빛》은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늘 챤디가르는 현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있다. 챤디가르와 뉴델리에서 발행되고있는 《트리뷴》의 부수는 100만부를 넘으며 그 신문은 A부류에 속하는 전국적인 일간신문으로 알려지고있었다.

비슈와나스의 이름으로 하여 한때 인기를 끌던 《트리뷴》이 이제는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진 그 명성을 잊을리가 없었다.

《트리뷴》은 비슈와나스의 원고들을 환영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에 대한 기사를 쓰는족족 일간신문인 《트리뷴》에 날려보냈다. 그러면서도 주에 1건씩 《인디안 타임스》에 내는것은 철칙으로 지켰다.

인디아의 지식계층들은 물론 그외 많은 사람들속에서 조선에 대해, 조선의 위대한 수령에 대해 알게 되였다.

비슈와나스의 사색은 줄곧 조선이라는 나라에로 쏠리고있었다.

어떤 나라이기에 가보지도 않고 무슨 힘에 끌려 내가 스스로 그 나라에 대한 소개기사를 몇년째 계속 써내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죽음의 고비도 겪어야 했는가. 그 나라를 지지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죽음도 맞받아나갈 용기가 나도모르게 이 가슴속에 샘솟는것은 또 무엇때문인가.

확실히 그 나라에는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정의의 가슴들을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는 견인력이 틀림없었다.

조선에 대한 그의 애착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해졌다. 지난날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조선은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그 위용을 만방에 더욱 뚜렷이 빛내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지와 찬탄의 목소리는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졌고 인디아에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그의 글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비슈와나스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들의 글을 통하여 조선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공감하게 되였다.

이제는 그의 부모들도 70이 넘었다. 이전보다는 많은 날을 아들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도 빈번히 고향마을에 갔다오군 하였다. 역시 바드리 나트 취바와 두르가데비의 심장은 판도리비비마을에 있는듯싶었다.

부모들은 농촌에 있기를 좋아하였다. 그렇게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도 그들은 승용차를 절대로 타지 않았다. 집에는 차도 많았는데 그들은 뻐스가 몸에 맞는지 언제나 그것을 리용하여 고향마을에 갔다오군 하였다.

바드리 나트 취바와 두르가데비는 이 세상에 대해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쓰고 단맛과 빈부의 차이를 누구보다 많이 현실적으로 감수하고있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7남매의 자식들은 모두 뉴델리에서 기업들을 하고있었다. 맏자식이 뉴델리에 발을 붙여서인지 모든 형제들이 손을 잡고 이곳에서 의좋게 살아가고있었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친척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도시에서처럼은

살지 못하였다. 또한 농촌에는 굶어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바드리 나트 취바와 두르가데비는 이쪽과 저쪽, 다시말하여 극단에서 극단으로 오가며 세상의 모든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있었다. 부모들은 한주일내지 열흘만에 농촌에서 돌아와서는 그사이 쌓인 신문들과 잡지들을 열심히 읽으며 더 깊이 이 세상을 리해하려고 하였다.

이럴즈음 국제광고협회에서 비슈와나스를 초청하였다. 무시할수 없는 광고기지로 세계에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인터라즈》의 총사장을 국제광고협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던것이다.

국제광고협회는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에서 제일 큰 광고기구였다.

생각던 끝에 비슈와나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 기회에 아메리카대륙도 한번 밟아보자는것이였다.

아메리카합중국?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서방세계에서 미국은 《민주주의표본》으로 한껏 묘사되고있었다.

그래서인지 기자구락부에서는 흔히 마주앉으면 미국에도 가보았는가라는 질문이 오가고있었다. 하지만 우정 갈 필요는 느끼지 않고있던 비슈와나스였다.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과는 다 거래하고있었고 또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도 돌아본 비슈와나스는 이 기회에 가장 발전되였다고 떠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가보자는것이였다. 이것은 그의 심장이 가리켜 내린 결심은 아니였다. 다만 랭철한 리성이 내리는 판단이였을뿐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부모들이 뉴델리와 판도리비비마을을 오가며 나라의 극단과 극단을 보고있듯이 자기도 세계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극단과 극단을 실지 눈으로 확인해보자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그의 걸음은 처음으로 미국의 북동부에 자리잡고있는 도시 뉴욕으로 향하게 되였다.

항시 비슈와나스를 주시하고있던 남조선대사관에서는 놀랐다. 몇년간 북조선을 찬양하는 글들을 도수높게 냅다 써온 그가 북조선에 갈줄 알았는데 이외에도 미국으로 가는것이였다.

놈들은 쾌재를 올렸다. 곧 그들의 련락선이 서울로, 뉴욕으로 이어졌다. 이 기회에 그를 돌려세워보자는것이였다. 돈으로, 기업으로 그리고 온갖 《명예》로…

때는 1972년 1월이였다.

대륙과 대양을 횡단하여 가는 도중의 항공역마다에 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안내사업이 멋있게 째여져있었다. 어딜 가나 그의 주위에는 《친절》한 남조선의 외교관들이 감돌았다.

허참, 이렇게도 낮간지럽고 뻔뻔스럽다고야.

보기좋게 나딩굴었던 그 자동차의 주인이 다시 살아나서 마음속의 가속답판을 누르고 또 누르고있는줄 너희들이 알고있는가.

뉴욕국제비행장에 내린 그는 국제광고협회 관리들의 마중을 받았다.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풀래트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또 이미 련락받은 남조선의 외교관들이 《친절》하게 대기하고있는것이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을 기본으로 거래하는 《인터라즈》총사장이며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을 극구 찬양하는 《인디안 타임스》주필인 비슈와나스가 뉴욕에 나타난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없는 절호의 사업대상을 만난 기회인듯싶었다.

그자들은 고급호텔을 예약해놓았다느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많은 광고주문을 하겠다느니, 자금이 요구되면 제한없이 투자하겠다느니 하면서 별의별 추파를 다 던지고있었다. 약삭바른 남조선의 특파원들은 벌써 《자유》의 나라에 온 감상이 어떤가고 묻는 판이였다.

그자들을 한옆으로 밀어제치며 비슈와나스는 성격그대로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시끄럽게 놀지 말어!》

뉴욕의 거리를 달리는 그의 시야에 하늘을 찌를듯한 고층건물들이 안겨왔다. 차안에서는 꼭대기를 볼수 없는 그 건물들에 대해 안내자는 열심히 소개하였다.

《저 건물이 바로 그 유명한 국제무역쎈터입니다. … 그리고 저 이스트강기슭에 자리잡은 장방형의 거대한 건물이 바로 유엔본부청사입니다.》

비슈와나스는 눈길을 옆으로 돌리고 자본주의세계의 대금융자본과 대독점기구들의 총본부가 몰켜있는 이 도시를 보려고 머리를 들었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화려한 그 모습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직은 다는 가늠할수 없었다. 그가 받은 첫 느낌은 다만 빼곡이 솟아있는 건물사이에 놓여있는 거리는 산속에 난 오솔길을 방불케 한다는것이였다. 그리고 거리를 붐비며 오가는 사람들은 협곡에서 헤매는 개미들의 무리를 련상케 한다는것이였다.

그날저녁 비슈와나스는 호텔에서 국제광고협회관계자들이 차린 식사에 초대되였다. 남조선의 특파원들이 주위에 감도는것을 본 그는 광고협회관계자들에게 저자들을 자기옆에 갖다놓으면 아예 돌아가겠다고 오금을 박아놓았다.

한잔 들어가면서 그들은 말이 많았다.

《뉴욕을 처음으로 방문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 모든 도시들에는 다 자기의 상징이 있겠지요.》

도시를 돌아보기 전에는 말하고싶지 않았으나 그들은 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을 시켰다.

《뉴욕의 상징은 〈자유의 녀신상〉이라고도 말할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이름대로 말한다면 자유를 상징한다고 말해야 하겠지요.》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국제광고협회를 방문하고 이 국제기구의 부위원장이라는 명예를 받아안았다.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동유럽의 많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그쪽 지역에서의 《광고왕》으로 떠받들리우는 비슈와나스를 그자리에 앉힘으로써 국제광고협회는 국제기구로서의 자기의 지위와 객관성을 세상에 충분히 보여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뉴욕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뉴욕금융시장, 뉴욕증권시장, 뉴욕주식거래소, 세계무역쎈터, 유엔본부 등…

상업금융을 배운 그의 눈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면모를 금융의 시점에서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런 눈은 흔히 생활의 겉면

이 아니라 그 밑바닥을 헤집기마련이다.

사실상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번쩍거리며 상품이 차넘치고 사람들이 생존열로 서로 붐비는것이 시선을 끈다. 그러나 그 사회의 이모저모와 그 밑바닥까지 자세히 헤쳐보면 폭음, 포식, 과잉소비로 사람들의 두뇌에 곱이 끼고 인간이 랭담한 소비기계처럼 변해가는것을 발견하게 됨은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뉴욕타임스사를 찾는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디아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였던 이 신문의 안면있는 기자들의 안내를 받았다.

신문은 언론이면서 동시에 기업이였다.

《뉴욕타임스》는 국내외의 정치, 경제소식들을 위주로 편집하면서 판매경쟁이나 광고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경영을 유지한다는 《고급지》로 자처하고있는 신문이였다.

1851년에 창간된 이 신문은 한번에 80～100면씩 편집하여 하루 네번 꺾어 인쇄배포하고있는 정도였다. 신문의 지면에는 글과 함께 사진과 그림, 광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이 신문은 《자립성》, 《객관성》을 표방하고있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있는 철저히 대독점자본 특히 동북부의 금융자본에 예속되여있는 부르죠아신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비슈와나스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많이 쓰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이 신문사의 안내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업적을 소개한 《뉴욕타임스》를 내놓는것이였다.

《조선은 20세기의 영웅을 낳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옹근 한면에 《**김일성**전》제1부를 소개한 그 신문은 1969년 10월 27일호였다. 또한 같은 책 제2부, 제3부의 내용을 알리는 글을 실은 신문들도 있었다.

부르죠아신문들이 이 정도로 소개한것을 보면 **김일성**동지의 명성이 세계언론계에 얼마나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가를 과히 짐작할수 있는것이였다.

《마천루》의 바로 뒤거리에 가본 비슈와나스는 깜짝 놀랐다. 거기에서 그는 《자유》의 녀신이 떠드는 《문명》의 세계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 도시의 판이한 두 현실을 목격하게 되였던것이다.

거기에는 최대의 빈민굴이 있었다.

그 거리의 이름은 《할렘가》였다. 기껏해서 7만명정도의 인구밖에 수용할수 없는 그 거리에는 무려 50만명의 흑인들이 몰켜살고있었다. 그들은 상품포장지와 판자로 지은 누기차고 악취풍기는 움막에서 살거나 거리를 방황하며 《자유의 녀신상》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고있었다. 그들에겐 일자리와 먹을것이 없었다.

번쩍이는 네온등, 화려한 백화점들,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는 《복지사회》이니 《평등》이니 하는 미사려구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였다.

얼핏보매 화려한 이 도시에서는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있었으며 주택부족, 물부족, 대기오염 등 심각한 사회적문제까지 겹치여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있었다.

《월가》와 《할렘가》는 자본주의세계의 앞모습과 뒤모습이였다. 그것은 《천당》과 《지옥》의 두 극단이였다.

《월가》에는 향락에 도취된 신사숙녀들이 미친듯이 웃고 떠들어대고있었으나 《할렘가》의 쓰러져가는 건물과 컴컴한 지하실, 악취풍기는 오물장들에서는 버림받은 불쌍한 인간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이것이 과연 《만민의 평등과 자유》란 말인가.

미국국가창시자들은 세상에 대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인간으로 창조되였다.》고 선포하였지만 아마도 그들은 그 《평등권》을 무산자들과 흑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던듯싶다.

《자유의 녀신상》이 서있는 대돌에는 《지쳐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라》라는 글이 씌여있는데 바로 그 턱밑에 집없는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앉아있는것이다.

세상에 태여나자부터 온갖 못된짓만 일삼으며 인류를 희롱해온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녀신상》의 거룩한 외형으로 마치 신성한 《하느님》의 사도의 모습을 천하에 보여주려고 하는듯 했다.

앞뒤가 다른 이 도시의 어지러운 그 모든 몰골이 비껴서인지 여기에 흐르는 강물도 분이 잔뜩 치밀어 사납게 내닫는듯싶었다.

처음으로 뉴욕을 돌아본 비슈와나스는 미국식사고방식과 생활신조, 미국식생활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실용주의, 그것이 미국의 철학이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란 본능의 노예이고 《본능의 묶음》이라는것이다. 그것이 과연 사람의 본성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에 대한 이러한 리해로부터 실용주의자들은 인류의 력사가 인간의 리기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과 리기적인 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처럼 설교하고있다.

20세기초부터 미국의 정신생활을 지배한 철학사조로서 실용주의는 《미국식민주주의》가 매 개인이 자기 문제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주의적견지에서 리기주의를 마음대로 부릴수 있게 하는 정치제도이며 생활양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극 찬양하고있었다.

틀렸다.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식정치방식으로는 결코 인류를 자유와 평화, 진보와 문명에로 인도할수 없다.

비슈와나스는 여기는 자기와 운명을 맺을 곳이 못되는 곳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왜서 월트 휘트만(뉴욕주태생의 시인. 1819－1892)이 자기의 조국 아메리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민족의 수치를 느끼였던가.

월트 휘트만은 곧추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메리카인민의 이름으로 인류의 모든 초막들과 주택들을 위하여 세계에 인사를 보냈건만 그의 민주주의목소리는 여지없이 이 땅에서 랭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느낀다. 내 민족의 형언못할 수치와 비굴을 그리고 그걸 모두 내 일로 느낀다. 내가 당하는 그것도 바로 인도주의에 대한 복수이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태여난 이 땅의 주민이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몰려든 각이한 민족의 혼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수치로 여겼으리라.

감명깊게 회고할 자기 민족의 유구한 력사가 없는 나라가 바

로 미국이였다.

월트 휘트만이 부르던 자유행진곡은 어디에 갔는지 이 땅에 들리는것은 오직 교회의 제단에 선 그리스도교목사의 음성뿐인듯싶었다.

남조선의 집권자들은 끈질기게 비슈와나스를 따라다니며 기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주겠으니 곧장 자기들한테로 가자고 회유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그들에게 직방 말하였다.

《〈한국〉에 사상이 있는가?》

가보나마나한 일이였다. 사상이 없는 나라는 주권도 존엄도 있을수 없다. 미국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는짓이란 그 어떤것도 믿어볼만한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였다. 그들을 따라선다면 차라리 인간사표를 내고말것이라고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자유세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어용나팔수들에게 그는 말하였다.

《당신들이 한번 대답해보라.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가? 구속의 나라인가?》

7. 충격, 일본에 있는 조선

《인터라즈》의 주인이 《자유》의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으면 그래도 그 나라의 새로운 광고주문이 있을수도 있으련만 《인터라즈》는 여전히 사회주의나라들을 기본으로 하여 돌아가고있었다.

또한 《인디안 타임스》에도 《자유》의 나라에 대한 그의 반응이 실릴수도 있으련만 거기에 대해 쓴 아무런 글도 엿볼수가 없었다.

비슈와나스의 생활에서는 조그마한 변화도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있었다.

그는 묵묵히 《인터라즈》의 일을 예전대로 내밀었으며 또한 변함없이 조선을 찬양하는 글들을 쓰고있었다.

1973년 12월 10일.

이날에 조선령사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되였다. 인디아와 조선이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던것이다.

제일 기뻐한것은 비슈와나스였다.

이때 장경일이 2번째로 다시 인디아에 파견되여왔다. 비슈와나스는 조선대사관에 더 자주 드나들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여 가져다보았다.

1974년 4월 15일을 맞으며 비슈와나스는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조직하였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참가한 사람들의 급수는 낮지 않았다. 정부의 각료들 10여명과 전국의 모든 주들에서 이름있는 학자들 30여명을 초청하여 실속있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던것이다. 널리 선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토론회였다. 일이 잘될 때라 알따브 후쎄인과 아브둘 말라크도 뉴델리에 와있어서 그들도 참가하였다. 그러고보면 국제적성격을 띠는 모임이기도 한것이였다.

조선에 대한 반향은 모두가 좋았다. 참가자들은 조선에 대한 연구모임을 자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자면 이 모임 참가자들을 하나로 통솔하는 그 무슨 조직체의 이름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토론끝에 내온것이 《주체사상연구회》였다. 비슈와나스가 이 회의 서기장으로 선출되였다.

비슈와나스는 회장으로 에취. 디. 말비아를 추천하였다. 그는 비슈와나스보다 나이가 20년이나 우였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름있는 정치가였다.

인디아국회는 량원제였다.

라자싸바(상원)는 350명으로서 국회가 선거하였으며 록싸바(하원)는 561명으로서 인민들이 선거하였다.

말비아는 록싸바로서 인민들의 신망이 높은 사람이였다. 그는 조선에도 가본 사람이였고 주체사상의 원리를 인디아의 현실에 구현하려고 모색하고있는 사람이였다. 바로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내세워야 조직의 권위가 보장된다고 비슈와나스는 생각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세월을 거슬러올라가며 주체사상연구조직의 력사를 정립해보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직되여 활동한 전국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으로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여 세계적으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첫 전국조직이 인디아에서 탄생하게 된것이였다.

근 50명에 달하는 이 회의 성원들은 이때부터 통일적으로 움직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토론을 정례화해나갔다.

인디아의 작가부부로서 후날 조선에 대한 시들과 김정숙어머님에 대하여 쓴 도서 《위대한 어머니》를 내놓아 유명해진 프라브죠트 카우르와 나렌데르 필 싱도 이때부터 이 회의 성원들이였다.

이 회의 성원들은 전국각지에서 회원들을 늘여갔다.

이것은 앞으로 출현하게 될 인디아에서뿐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주체사상연구집단인 《인디아주체사상연구학회》의 맹아적단계라고 말할수 있는것이였다.

이때부터 비슈와나스는 조선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소리내며 크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느날 비슈와나스는 장경일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조선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인가?》

직방 물어보는 그의 말에 장경일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주랴.

《그것이야 가보면 알게 아닌가.》

하긴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자랑을 맞대놓고 늘어놓을수 있으랴. 본국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비슈와나스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꼭 한번 가보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북조선에 가보았는가고 묻던 남조선대사관작자들의 그 야유어린 눈길이 가슴에 못박혀있었던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조선에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맞서는자들에게는 끝까지 이겨야만 시원해하는 그의 성미였다.

그해 11월 비슈와나스는 도꾜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에 가게 되였다. 정부에서 인디아대표단성원으로 그를 선출하였던것이다. 《인터라즈》는 나날이 활성화되여 나라의 광고뿐아니라 전시에서도 손꼽히는 회사로 알려지고있었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한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도꾜에 조선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책을 통하여 일본에 총련이 있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훌륭한 조직이 있는가 하는것은 제눈으로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이번 기회야말로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선의 해외동포들을 만나보고 총련을 방문해보면 조선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것은 판명될것이였다. 모든것은 제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에만이 확고한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총련방문의사를 조선대사관에도 알리였으며 인디아외무성에도 통보하였다. 그는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할줄 알았다. 이것은 그의 장점이였다.

11월말 그는 도꾜에 도착하였다.

국제항공역인 나리다비행장은 눈이 얼리우게 화려하였다. 혼잡을 이룬 도시는 붐비였다.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도꾜에 대한 그의 첫인상은 대기가 심히 오염되여있다는것이였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도꾜는 인구밀도가 조밀한 도시였다. 그런데다가 공장들과 교통수단들은 집중되여있었다. 이런 도시는 례외없이 대기오염, 먼지,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파괴되여 공해가 심해지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체류기간 박람회를 하는 짬짬에 도꾜시가를 돌아보았다. 도시의 중심부를 이루는 스미다천서부지역은 비교적 높은 지대로서 여기에는 일본의 최고통치기관들과 독점자본가들의 은행, 회사, 상점들이 집중되여있었다. 또한 이 지역은 일본의 고위관리들과 독점자본가들의 호화로운 주택지구로 되여있었다.

반면에 동부지역은 인구밀도가 조밀한 빈민거주지역이며 로동자지구로 되여있었다. 그는 또한 에도성을 비롯한 유적유물을 돌아보면서 싸움으로 얼룩진 일본의 력사에 대한 조예를 깊이했으며 특히는 한 나라의 수도에 자리잡고있는 미군기지를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였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쥔 극소수의 특권계급이 근로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사회의 전모는 여기 도꾜시가에도 력력히 비껴있었다.

반면에 비슈와나스는 총련을 방문하고 놀랐다.

도꾜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지요다구의 높은 언덕에 공화국기가 버젓이 날리고있었다. 여기에 바로 전체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이 자리잡고있는것이였다.

조선의 축소판이 도꾜에 있는듯한 인상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총련 국제부일군들의 마중을 받았다. 과장 백한기와 젊은 영어통역인 최관익이 그를 안내하였다. 모두가 그의 방문을 기뻐하는것이였다. 이들도 조선대사관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친근한 조선의 벗들임이 틀림없었다.

모두가 활기에 넘쳐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비슈와나스는 총련중앙본부와 조선대학교, 조선은행, 총련상업쎈터 등 총련의 여러곳들과 조선인기업들을 돌아볼수 있었으며 재일조선인들의 생활을 체험할수 있었다.

그는 일본에 있는 모든 조선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생활하고있는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조선사람들속에 있으면서 시종일관 그는 마치도 자기가 조선에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비슈와나스는 조선은행에서 총재와 부총재를 만나보고 그들의 높은 지성도와 영민한 사고, 포괄적인 리해력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들은 이 은행의 초기설립자들이며 오늘과 같이 은행을 번창하게 하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였다.

기자이지만 금융을 전공하고 손꼽히는 광고주식회사를 이끌고있는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은행을 들여다보는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놓치지 않는 하나의 중요한 일로 되고있는것이였다. 때문에 그의 모든 사회학적인 글들은 구체적인 수자와 경제적분석이 밑바탕에 안받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신빙성있고 깊이있는것으로 세상에 알려져있는것이였다.

총련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들이 잘 갖추어져있었으며 정연한 교육체계가 서있었다.

총련은 살아움직이는 산조직이였다. 조선의 적대국 자본주의 일본에 살고있으면서도 가슴을 펴고 조선의 해외공민임을 떳떳이 자랑하는 이사람들!

이들의 가슴속에 활력을 부어주는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총련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점차 깨닫게 되였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조국, 위대한 수령이 자기들을 지켜주고있다는 긍지가 가득차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조국,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한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 이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확고한 신념이였고 드팀없는 의지였다.

갑자기 글의 제목이 떠올랐다.

태양은 빛난다!

그렇다. 나는 그 제목으로 글을 쓸것이다. 조선에 대해 쓴 첫 기사의 제목이 《태양》이였다면 이번에는 《태양은 빛난다》로 쓸것이였다. 신문기사? 아니, 책으로 써야 한다.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벌써 활자로 찍힌 두툼한 책이 떠오르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바다멀리 이역땅에서도 자기들에게 참다운 조국과 민족적존엄을 안겨주신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면서 애국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재일조선동포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김일성**동지는 참말로 위대한 태양이시였으며 그 빛발은 그들의 마음속에 등대로 비치고있었다.

총련은 공화국공민권을 비롯한 제반 민족적권리를 영예롭게 지키고있었으며 또한 귀국의 권리와 조국래왕, 제3국에로의 려행의 권리 등을 다 행사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만나고 총련의 대외사업과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인식을

할수 있었다.

부의장은 매우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여러차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사람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원한 주체의 철리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탁월한 경륜, 고매한 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비슈와나스는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만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의장에게서 총련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에 대해 들으며 자기가 조선의 위대한 수령에 대하여 글을 써온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떳떳이 생각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이미 조선의 근대력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라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조선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걸어온 로정까지 그이의 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그이의 력사일줄은 정녕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한덕수의장과 말을 나눌수록 그에게서 확확 내뿜는 자기 수령과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정신의 열화가 자기의 가슴에도 흘러드는듯싶었다. 총련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였다.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였다.

인디아사람들도 해외에서 많이 살고있는데 이런 조직은 어디에도 없었다. 확실히 총련은 세계해외교포운동력사의 견지에서 볼때에도 선구자적모범을 창조한 본보기조직임이 틀림없었다.

비슈와나스가 총련방문을 통하여 강하게 받아안은것은 조선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이였다.

한덕수의장은 총련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해외교포조직이라고 말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면모를 여기 총련에서 보는듯 했다. 그야말로 일본에 있는 조선이였다.

비슈와나스에게 있어서 총련이 준 감흥은 실로 큰것이였다.

총련! 그는 조선을 돌아본듯한 감정이였다. 총련을 돌아보고 무

엇보다 기쁜것은 자기가 생각한 모든것이 옳았다는것을 증명하게 된 그것이였다. 자기의 견해가 부정되는 현실을 본다면 언론인으로서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데 있으랴.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한 신심을 가질 때가 제일 행복한감을 느끼게 되는것인지도 모른다.

비슈와나스는 흥분하였다. 《쏘베트 땅》에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해설론증한 숱한 글들을 편집하면서도 일찌기 이런 흥분은 없었다.

언제인가 나는 비슈와나스와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한적이 있다.

《선생은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였습니까?》

《나는 맑스－레닌주의를 인정하기때문에 그와 관련한 숱한 글들을 편집은 했지만 사실 신봉은 하지 않았소.》

《그러면 신봉하는척은 했습니까?》

《신봉하는척도 하지 않았소.》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척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체사상을 그렇게 열렬히 신봉하게 되였습니까?》

《공감되였기때문이요.》

솔직한 말이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람과 세계와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밝힌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정통파였든 아니였든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첫 순간부터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불쑥 내친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양으로 곧추 가 주체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전면모를 속시원히 확인해보고싶었다.

대안의 일을 알려면 강을 건너가 보아야 안다.

뉴델리에서 평양까지는 멀다. 그러나 여기 도꾜에서 평양까지는 그보다 훨씬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니 여기까지 왔다가 평양에 가지 않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지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정을 변경시켰다. 박람회를 치르고난 그는 대표단과는 별도로 조선을 방문하고 귀국할것을 결심하였다.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